







2024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선정 공연 소개 자료

[국 약]

국악 1 전통타악연구소 : 국악콘서트! 아리랑 랩소디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전통타악연구소		
공연명	국악콘서트! 아리랑랩소디		
단체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www.taak.com
실무자명	김정희	E-mail	freer2000@hanmail.net
		연락처	(02) 313-5447
단체소개	<p>전통타악연구소는 우리장단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통타악을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장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 2004년 서울특별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었다.</p> <p>방송환을 중심으로 국악과 무용을 전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제10회, 19회 KBS서울국악대경연 장원, 제2회김제지평선축제 전국농악경연대회에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 무, 악에 대한 기량을 고루 갖추었고, 미국 UN본부,스페인, 일본, 이스라엘, 스리랑카,말레이시아,몽골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민족의 우수한 예술성을 세계무대에 알리는데, 공헌하였다.</p> <p>2014년~2020년,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전국 문예회관에서 60회 이상 공연활동과 2002년 야단법석, 2000년~ 현재까지 퓨전콘서트 공감21, 타악퍼포먼스! 天地人의 소리, 2012년 feel굿, 2013 아리랑랩소디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여, 우리음악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p>		
공연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1.17 동두천시민회관 경기예술무대 공연 진행 ○ 2022.12.16. 거창문화재단 송년기획공연 진행 ○ 2022.10.12.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진행 ○ 2019.11.14. 11월고흥문화회관 방방곡곡 기획공연 진행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1.06.08.~11.30. 신나는예술여행 타악콘서트!feel굿 / 경북기계명장고등학교 등 10개처 2. 2022.10.12.~12.16 방방곡곡문화공감 국악콘서트! 아리랑랩소디 / 사천문화예술회관, 거창문화센터 3. 2022.06.14.~10.15 신나는예술여행 타악콘서트!feel굿 / 경남교육청예술교육원해봄2 등 12개처 4. 2023.11. 17 경기예술무대 국악콘서트! 아리랑랩소디 / 동두천시민회관 		
공연영상	https://youtu.be/aVgcf0RH4p0 https://youtu.be/v_9R8XUxvo0		

구 분	내 용		
참여인원	총 27명 (출연진 18명 / 스태프 9명)		
소요시간	총 80분 (인터미션 : 없음)	주관객층	일반 (아동, 청소년, 일반, 노인, 장애인 등)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2m)×높이(10 m)×깊이(12m)	덧마루
기획 및 제작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연은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중심으로,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매력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리랑은 한국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이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통예술의 심오함과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고자 하는 목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전통과 현대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연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강조하여, 아리랑을 통한 우리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면서도, 새로운 예술 언어를 창조하고자 합니다. 관객들에게는 기존의 예술 경험과는 다른,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적 탐험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선사하고자 하는 깊은 목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예술적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컨셉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컨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시대의 아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대를 다루며, 각각의 시대를 아리랑을 통해 표현합니다. “과거”에서는 전통타악기와 아리랑을 결합하여 역동적인 한민족의 모습을 강조하고, “현재”에서는 아리랑과 춤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현대의 다양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서는 다양한 악기의 화합으로 미래의 희망을 상상하며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적인 탐험을 선사합니다. □ 음악, 춤, 연희의 다양한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춤, 연희 등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조합하여 아리랑의 다면적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전통타악기와 개량타악기의 다이내믹한 퍼포먼스, 아리랑과 춤의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 다양한 악기의 화합은 창의적이고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아리랑의 다채로운 예술적인 세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악기와 아리랑의 Feel / 아리랑의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과 타악기의 조화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다이내믹한 퍼포먼스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전통타악기와 개량타악기가 선보이는 화려한 퍼포먼스는 아리랑의 경쾌함과 애절함을 동시에 표현하며, 실내악과의 조합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룹니다. 이로써 관객들은 전통 퍼포먼스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p>▶ 아리랑과 춤의 Feel / 아리랑의 현재</p> <p>- 아리랑과 현대 춤의 조합은 현재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명으로 풀어내는 감동적인 작품으로, 아리랑의 아름다운 가락과 춤의 우아한 움직임이 조화를 이룹니다. 밴드와의 협연으로 음악적인 다양성을 더하며, 지역 예술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예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p> <p>▶ 아리랑 랩소디 - 화합의 곳 / 아리랑의 미래</p> <p>- 미래의 대동신명풀이를 상상하며 다양한 예술 분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풍성한 랩소디가 전개됩니다. 밴드와 연희,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연으로 공연은 더욱 다채로워지며,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창출합니다. 이로써 관객들은 예술의 다양성과 화합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며, 새로운 감성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p> <p>■ 공연 사진</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fr 1fr; gap: 5px;">       </div>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p>■ 지역의 문화 활성화 : 아리랑 공연은 지역적으로 스스로의 유산과 전통에 대해 축소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음</p> <p>■ 교육적 가치 : 아리랑랩소디 공연을 통해 학생들과 젊은 세대에게 한국 전통음악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공연을 통해 아리랑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촉진 할 수 있음</p> <p>■ 피치 판매 및 수익 증가 : 아리랑이라는 주제는 한국의 문화 유산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요소인 리듬과 결합은 가장 큰 공유층,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p>

국악 2 김소라 : 김소라 타악 콘서트 - LANDSCAPE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김소라		
공 연 명	김소라 타악 콘서트 - LANDSCAPE		
단체 소재지	경기	홈페이지	www.sorakim.org
실무자명	하늘벗	E-mail	productionbud@gmail.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한국의 타악연주자, 월드뮤지션이자 프로듀서로 경계 없는 활동을 이어가며 주목받은 김소라는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타악.연희 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왔다.</p> <p>2018년 정규 1집 <비가 올 징조> 발매 이후, 세계 최대 음악 박람회 WOMEX 2018, 북미월드뮤직 서밋 MUNDIAL MONTREAL 2018> 공식 쇼케이스를 통해 유럽과 북미 월드뮤직씬에 성공적으로 데뷔하였다. 첫 정규 앨범은 제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 크로스오버 음반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유럽&북미&오세아니아 7 개국 25 개 도시의 유명 극장과 페스티벌 단독 월드 투어를 진행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세계 최대 음악페스티벌 중 하나인 WOMAD UK 페스티벌에서는 <올해 최고의 스타 중 한명은 한국의 타악연주자 김소라이다. Music OMH>라고 평가 하였다. 2021년 정규 2집 앨범 <랜드스케이프> 작품으로 2021 서울문화재단, 서울아트마켓 팜스초이스 공식 아티스트, 한문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에 선정되어 타악연희 음악의 가능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022-2023 김소라 장단 협주곡 프로젝트 <충돌이론>, <이데아>는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예술창작 작품에 선정되어 다양한 장르의 작곡가, 지휘자와 협업하면서 관현악, 실내악 음악으로서 장단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KBS 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장단 콘체르토의 주요 레퍼토리를 발표하였다. 김소라만의 장르를 꾸준히 만들어 내면서 더욱 깊어진 예술성과 음악성을 기반으로 전통타악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2주, 3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1주, 2주, 3주,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2주, 3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1주, 3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1주, 2주, 3주, 4주)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p>2023.09.22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 <김소라 타악콘서트 LANDSCAPE></p> <p>2022.09.29 광주북구문화센터 콘서트 in 북구시즌2 초청공연 <김소라 타악콘서트LANDSCAPE></p> <p>2022.08.16 호주 다윈페스티벌 공식초청공연 <김소라 타악콘서트 LANDSCAPE></p> <p>2022.8.19-20 춘천공연예술제 초청공연 <김소라타악콘서트 LANDSCAPE></p> <p>2021.11.12 울산 처용문화제 초청공연 <김소라 타악콘서트 LANDSCAPE></p> <p>2021.10.15-16 한문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 <김소라 타악콘서트LANDSCAPE> (지원금 2천5백6십만원)</p> <p>2021 ARKO 공연예술창작산실 영상제작지원사업 선정 <김소라 LANDSCAPE>(지원금 1천2백만원)</p> <p>2021.07.03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작품 선정 <김소라 LANDSCAPE> (지원금2천4백만원)</p> <p>2021.10.13 서울아트마켓 PAMS CHOICE 공식쇼케이스 아티스트 선정<KIMSORA></p> <p>2020.05.08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초청공연 <김소라 타악콘서트 LANDSCAPE></p>		

구분	내용		
	<p><단체 실적> 2023.09.22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 <김소라 타악콘서트 LANDSCAPE> 2022.09.29 광주북구문화센터 콘서트 in 북구시즌2 초청공연 <김소라 타악콘서트LANDSCAPE> 2022.08.16 호주 다윈페스티벌 공식초청공연 <김소라 타악콘서트 LANDSCAPE> 2022.8.19-20 춘천공연예술제 초청공연 <김소라타악콘서트 LANDSCAPE> 2021.11.12 울산 처용문화제 초청공연 <김소라 타악콘서트 LANDSCAPE> 2021.10.15-16 한문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 <김소라 타악콘서트LANDSCAPE> (지원금 2천5백6십만원) 2021 한문위 공연예술창작산실 영상제작지원사업 선정 <김소라 LANDSCAPE>(지원금 1천2백만원) 2021.07.03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작품 선정 <김소라 LANDSCAPE> (지원금2천4백만원) 2021.10.13 서울아트마켓 PAMS CHOICE 공식쇼케이스 아티스트선정<KIMSORA> 2020.05.08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초청공연 <김소라 타악콘서트 LANDSCAPE></p>		
공연영상	<p>김소라 LANDSCAPE 공연실황 full-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초청공연 https://www.youtube.com/live/DPsJuLsUZU?si=xRZagHexWRbv5XhU 김소라 LANDSCAPE 오리지널 필름 full- 공연예술창작산실 영상제작지원사업 선정작 https://youtu.be/5cgmlCvZbOQ?si=rA12cjFEaehRtMte 김소라 LANDSCAPE 공연실황 full -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작 https://youtu.be/x5HUAAX7t7o?si=QDzj7t81movaEX5u 김소라 LANDSCAPE 공연실황 full-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작품 선정작 https://youtu.be/XtmlsAeMhSk?si=RLPVQ_HISvDRHsup</p>		
참여인원	총11명 (출연진 6명 / 스태프 5명)		
소요시간	총 7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6세 이상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Minimum 무대너비 (6m)×높이(2m)×깊이(4m)	<input checked="" type="checkbox"/> 덧마루 1.5m*6개
기획 및 제작의도	<p>타악기 연주자, 월드뮤지션인 김소라는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유명극장과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음악활동에 영감을 주었던 경험들을 <Landscape>로 담아냈다. 기악, 보컬 중심의 음악에서 벗어나 타악기가 중심이 되어 음악을 이끌어 가는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기획의도가 있다. 김소라의 네번째 레퍼토리 <Landscape>에서는 한국 장단의 다채롭고 다양한 장르와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 시켜 타악과 피리, 생황, 태평소와 함께 7가지의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다.</p>		
컨셉 및 주제	<p><Landscape> 은 영감을 주는 것들에 대한 7가지 이야기를 노래한다. 본 작품은 다양한 풍경 속에서 만나는 희. 노. 애. 략의 감정을 타악기로 표현하였는데 길고 짧은 호흡 (장단)안에 펼쳐진 연주자의 풍경은 스쳐지나가는 것, 머물러 있는것,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p>		

구 분	내 용
내용 및 특징	<p>intro - 느리고 평온하다 [깊은 울림과 공간의 여백을 통하여 전달되는 호흡 안에서 느리고 평온하게 끊임없이 생동하고싶어요.] 호남지역의 대표 장단인 오채질굿을 재해석하여 심벌, 징, 장구, 정주를 활용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여러 스틱을 활용하여 연주법과 소리의 변화를 집중해서 보여주며 연주를 위한 새로운 악기 셋팅으로 연주자만의 개성이 담긴 연주를 보여준다.</p> <p>① 흔들리는 풀잎들 [불안정하고미래를알수없는각박한세상속에살고있는우리는 흔들리는 풀잎처럼 위태롭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그냥 잠시 흔들리는 것 뿐이에요.] 5박,10박으로 구성된 경기도당굿의 올림채, 터벌림 장단과 태평소의 힘찬 선율이 주를 이룬다. 터벌림안에서 진행되는 태평소의 주법과 리듬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연주하면서 태평소 리듬감이 돋보이도록 연주한다.</p> <p>②스퀘어 [“마음과 뜻과 잡순데로 소원성취 발원이라”라는 비나리와 인간의 삶을 노래하는 사철가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함께 하는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의 점이자 선이었다. 사방에서 뻗어 나온 선들이 만나 네모난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상상하는 것들을 담아내었다. 피리와 양금으로 구성된 이곡은 모던한 양금선율 위에서 피리의 다채로운 소리와 연주법을 기반으로 확장된다.</p> <p>③ 흥 [13세기의 이규보는 ‘흥이 깃들이고 사물과 부딪칠 때마다 시를 읊지 않은 날이 없다’고하였고, 15세기 정극인은 가사 ‘상춘곡’에서 물아 일체 어니 흥인들 다들쏘냐’라고 말했어요, 사물과 자아가 만나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흥’이라고 했던 것이죠. 영감을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즐거움, 이를 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징과, 동해안 장구로 다양한 리듬을 구성하였다. 호남농악의 이루삼채 가락과 변형가락, 웃다리 농악의 칠채와 변형가락, 휘모리로 진행되며 두 연주자의 호흡과 장단의 변화로 타악연주곡을 제시한다.</p> <p>④ Landscape [아름답고도 즐거운, 어쩌면 슬프고 외로운,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당신의 풍경은 어떠한가요?] 장구독주곡으로 굿가락과 풍물가락을 재해석하여 구성하였다. 장구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매우 한정적임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곡들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p> <p>⑤ 오래된 길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홀로 길거리를 걸을 때, 주위를 둘러봐도함께할벗이없다고 느껴질때, 쓸쓸한마음에 오래된 겨울 길을 걸으면서 잠시 허전한 마음을 채워봅니다.] 38관 생황과 동해안 별신굿의 굿거리를 활용하여 선율에 무게감을 주고 화음과 더불어 굿거리의 대표적인 리듬을 생황과 함께 공유하였다. 특히 곡 중반부에 즉흥 부분을 첨가하여 자유롭게 음악적 어법을 실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p>

구 분	내 용
	<p>㉞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걸. [어디로든갈수있다는것을..무엇이든할수있다는것을잊어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풍경에 대해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각자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p> <p>장구와 북으로 사물놀이와 풍물의 가락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타악기 듀오로 진행되는 이 곡은 연주자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선보이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경상도의 북가락과 호남지역의 대표 장단들을 연결하여 섬세하면서도 연주력을 뽐낼 수 있는 구성으로 완성시킨다.</p>
기대효과	<p>○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악 음악의 긍정적 발전 가능성 제시 - 연주자 개인의 능력과 예술성에 집중하고 발전시킨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순수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 - 전통음악/월드뮤직 공연을 대중들에게 가까이 제공함으로써 음악 선택의 폭을 넓힘 - 지역공연예술계에 폭넓은 작품과 아티스트를 소개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공연예술계에 자리매김 기여 - 연주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유통함으로써 다양한 작품의 예시를 제공. - 해외 음악페스티벌과 유명극장 투어를 진행했던 우수 작품을 국내에서 더욱 깊이있게 소개하는 기회 마련 <p>○ 융복합 예술 작업의 성공적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장르 예술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작업의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예술가의 역량 강화와 활동 범위를 넓힘. - 예술적 가치를 담은 작업을 시도하여 새로운 작품을 개발. <p>○ 사업성과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음악기반 창작음악 및 연주자와 타 장르 예술가와의 긍정적인 협업 사례 제시 - 연주자의 네트워킹을 통해 극장 전시 및 공연으로 해외진출 모색가능 - 메인 공연 워크숍 및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한국 음악을 소개하고 이해를 증진시켜 향후 동종업계 연주자들의 협력 네트워킹의 사례 제시

국악 3 주식회사 엔플러그 : 첼로가야금 <2.0> 콘서트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주식회사 엔플러그		
공연명	첼로가야금 <2.0> 콘서트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www.nplug.kr/
실무자명	이채미	E-mail	contact@jarasunjazz.com
		연락처	(02) 540-8138
단체소개	<p>[엔플러그 소개] 엔플러그는 공연 활로 개척 및 공연 제작, 음반 제작 등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한국의 컨템포러리 음악을 활성화 하고 해외에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음악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공연 제작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국내외 음악 페스티벌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p> <p>■ 대표 활동</p> <p>1) 엔플러그 라이브랩 -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만남과 시도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로 미니멀한 스튜디오 안에서 실험적인 연주를 진행.</p> <p>2) 앨범 및 LP 제작 - 소속 뮤지션들의 해외 아티스트와의 함께하는 작품 제작 - 2020 <Arirang, The Name of Korean vol.8> 아리랑 음반제작 - 2021년 북촌창우극장에서 Arirang, Reconnected라는 공연 개최, 해외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 및 마스터클래스 진행</p> <p>3) 오티움 (Otium) Project - 엔플러그의 대표이자 한국공연계를 대표하는 사진작가 나승열과 프로듀서 계명국이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로 공간이 주는 영감과 음악을 사진과 영상, CD, LP로 제작하는 프로젝트 - 참여 아티스트: 서영도, 신현필x고희안, 오정수, 김윤희, 이원솔 등</p> <p>4) 'MONO' 프로젝트 - 한 대의 카메라로 홀로 연주하는 영상을 담은 프로젝트로 음악의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모습을 담는다.</p> <p>[소속아티스트 - 첼로가야금 단체 소개] 첼로가야금은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된 듀오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은 베를린의 주독일 한국문화원에서 파독 간호사를 대상으로 가야금을 가르치는 강사 생활을 하던 도중 당시 베를린에서 활동하던 오스트리아 출신 첼리스트 김 솔 다니엘과 첼로가야금을 결성했다. 12현 가야금과 첼로로 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을 표현한 최초의 창작곡 '몽환'을 시작으로, 2018년 정규 1집 <South Wave, North Wind>,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작 <Arirang, The Name of Korean vol.8>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국내외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p>		

구 분	내 용																																																												
	<p>첼로가야금은 특히 창단 이래 유럽 현지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듀오는 지금까지 2016년 12월 독일 베를린을 시작으로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또한 2017년 9월 울산문화재단 주최 '에이팜 쇼케이스'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8년에는 수림문화재단 주최 수림뉴웨이브 <수림문화상>(1위) 수상, 2020년에는 정동극장이 주최한 '청춘만발' 프로그램의 '올해의 아티스트'(1위)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서울남산국악당 '젊은국악 단장' 아티스트로 선정되었다.</p> <p>첼로가야금은 데뷔 이후 현재까지 JTBC 슈퍼밴드2, 아리랑TV, 국악방송, YTN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전통음악의 가치와 새로운 언어를 대중에게 소개해 왔다. 특히 2021년에는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초청되어 네덜란드의 BIMHUIS, De Doelen, 독일의 Jazztage 등 세계 최고의 공연장과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가지며 매회 유럽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3.30. 양평문화재단 별빛물빛 첼로가야금 초청 콘서트 ○ 2023.10.12.~10.21. 방방곡곡문화공감 지원사업 <AM KANAL> 선정 ○ 2023.08.26.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첼로가야금 초청 공연 ○ 2023.03.31. 연천수레울아트홀 첼로가야금 단독공연 진행 ○ 2022.09.26. 저니투코리아뮤직 신노이&첼로가야금 <p><단체 실적></p> <table border="1" data-bbox="357 1196 1331 2110"> <thead> <tr> <th>NO</th> <th>공연일</th> <th>공연명</th> <th>공연장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23.11.17</td> <td>캐나다 몬트리올 초청공연 Le Centre des Musiciens du Monde</td> <td>Le Centre des Musiciens du Monde</td> </tr> <tr> <td>2</td> <td>2023.10.14</td> <td>서울아트마켓(PAMS) 초청공연</td> <td>국립극장 달오름극장</td> </tr> <tr> <td>3</td> <td>2023.10.12.~21</td> <td>방방곡곡문화공감 지원사업 선정</td> <td>안산문화의전예술전당, 전남 남도소리올림터</td> </tr> <tr> <td>4</td> <td>2023.10.06</td> <td>K-music Festival</td> <td>주영국한국문화원</td> </tr> <tr> <td>5</td> <td>2023.08.26</td> <td>ACC월드뮤직페스티벌</td> <td>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td> </tr> <tr> <td>6</td> <td>2023.08.03</td> <td>서울문화재단 <사이></td> <td>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센터</td> </tr> <tr> <td>7</td> <td>2023.06.24</td> <td>폴란드 poznan Ethnoport festival</td> <td>ZAMEK Grand Hall</td> </tr> <tr> <td>8</td> <td>2023.03.31</td> <td>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 단독공연</td> <td>연천수레울아트홀</td> </tr> <tr> <td>9</td> <td>2022.10.26</td> <td>전주 무형문화유산원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td> <td>전주 무형문화유산원</td> </tr> <tr> <td>10</td> <td>2022.09.26</td> <td>저니투코리아뮤직 신노이&첼로가야금</td> <td>서울 서교스퀘어</td> </tr> <tr> <td>11</td> <td>2022.08.28</td> <td>예술의 전당 여름음악축제</td> <td>예술의 전당</td> </tr> <tr> <td>12</td> <td>2022.05.10.~05.21</td> <td>청와대 개방행사 '경복궁 후원행사' 공식 초청공연</td> <td>청와대</td> </tr> <tr> <td>13</td> <td>2021.11.17</td> <td>2021 젊은국악 단장 : Plug-in</td> <td>서울남산국악당</td> </tr> <tr> <td>14</td> <td>2021.10.25. ~11.01</td> <td>Korea Focus Festival (유럽 투어)</td> <td>암스테르담 BOMHUIS 로테르담 De Doelen</td> </tr> </tbody> </table>	NO	공연일	공연명	공연장소	1	2023.11.17	캐나다 몬트리올 초청공연 Le Centre des Musiciens du Monde	Le Centre des Musiciens du Monde	2	2023.10.14	서울아트마켓(PAMS) 초청공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3	2023.10.12.~21	방방곡곡문화공감 지원사업 선정	안산문화의전예술전당, 전남 남도소리올림터	4	2023.10.06	K-music Festival	주영국한국문화원	5	2023.08.26	ACC월드뮤직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6	2023.08.03	서울문화재단 <사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센터	7	2023.06.24	폴란드 poznan Ethnoport festival	ZAMEK Grand Hall	8	2023.03.31	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 단독공연	연천수레울아트홀	9	2022.10.26	전주 무형문화유산원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전주 무형문화유산원	10	2022.09.26	저니투코리아뮤직 신노이&첼로가야금	서울 서교스퀘어	11	2022.08.28	예술의 전당 여름음악축제	예술의 전당	12	2022.05.10.~05.21	청와대 개방행사 '경복궁 후원행사' 공식 초청공연	청와대	13	2021.11.17	2021 젊은국악 단장 : Plug-in	서울남산국악당	14	2021.10.25. ~11.01	Korea Focus Festival (유럽 투어)	암스테르담 BOMHUIS 로테르담 De Doelen
NO	공연일	공연명	공연장소																																																										
1	2023.11.17	캐나다 몬트리올 초청공연 Le Centre des Musiciens du Monde	Le Centre des Musiciens du Monde																																																										
2	2023.10.14	서울아트마켓(PAMS) 초청공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3	2023.10.12.~21	방방곡곡문화공감 지원사업 선정	안산문화의전예술전당, 전남 남도소리올림터																																																										
4	2023.10.06	K-music Festival	주영국한국문화원																																																										
5	2023.08.26	ACC월드뮤직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6	2023.08.03	서울문화재단 <사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센터																																																										
7	2023.06.24	폴란드 poznan Ethnoport festival	ZAMEK Grand Hall																																																										
8	2023.03.31	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 단독공연	연천수레울아트홀																																																										
9	2022.10.26	전주 무형문화유산원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전주 무형문화유산원																																																										
10	2022.09.26	저니투코리아뮤직 신노이&첼로가야금	서울 서교스퀘어																																																										
11	2022.08.28	예술의 전당 여름음악축제	예술의 전당																																																										
12	2022.05.10.~05.21	청와대 개방행사 '경복궁 후원행사' 공식 초청공연	청와대																																																										
13	2021.11.17	2021 젊은국악 단장 : Plug-in	서울남산국악당																																																										
14	2021.10.25. ~11.01	Korea Focus Festival (유럽 투어)	암스테르담 BOMHUIS 로테르담 De Doelen																																																										

구 분	내 용		
공연영상	[첼로가야금 2.0 레파토리] 몽환 : https://youtu.be/KfnpDUsYUDA 운하 : https://youtu.be/vfL7ezoMNYg 한양 : https://youtu.be/Esuy8sxpLUY		
참여인원	총 10명 (출연진 2명 / 스태프 8명)		
소요시간	총 6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만 7세 이상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4m)×높이(1m)× 깊이(3 m)	팔걸이 없는 의자 기본 조명 , 음향
기획 및 제작의도	<p>2023년도 < Am Kanal > 기획 공연을 통해, 2집에 수록 될 신곡 위주로 투어 공연을 진행하면서 관객 반응 및 평가, 공연 전문가 피드백을 받아 작년 11월 첼로가야금 정규 2집을 발매했다.</p> <p>이번 공연인 첼로가야금 <2.0> 콘서트는 16년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두 아티스트가 8년 동안 연주 활동을 하며 서로의 소리에 녹아들어 균형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음악에 고스란히 담아 블루클래스, 모던록,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특성을 첼로가야금만의 새로운 어법으로 창작했다.</p> <p>팀 안에서 교차하는 다양한 정체성 - 서양과 동양, 여성과 남성, 전통과 현대, 예술성과 대중성 국악과 클래식-은 음악적 상호존중과 협력, 때로는 경쟁을 하며 두 악기의 무한한 매력을 첼로가야금만의 음악으로 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한다.</p> <p>첼로가야금의 음악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삶에 서로 다름을 발견해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즐거움, '존중'을 통한 '확장' 등 일상의 한 부분이자 인생의 일련의 과정을 음악을 통해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p>		
컨셉 및 주제	첼로와 가야금이라는 어쿠스틱 악기 두 대만으로 얼마나 다양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양과 서양 음악의 매력과 예측하지 못한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및 특징	<p>1. 몽환 (8분) 첼로가야금의 첫 번째 자작곡으로 국악과 클래식,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조화롭게 표현한 곡이다. 첼로와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서로 긴장감을 유지하며 테마를 이어가다가 각각의 악기가 지닌 고유의 소리를 자유롭게 솔로연주로 펼치며, 이후에 다시 하나의 소리로 합쳐진다.</p> <p>2. 비범한 카우보이 (5분) 서쪽이 아닌 동쪽을 향한 카우보이를 상상하며 음악의 서쪽과 동쪽 스펙트럼을 모두 자유롭게 넘나드는 첼로가야금의 넓은 표현력을 담아냈다. 컨트리, 블루그래스 등 20세기 미국 음악의 스토리텔링 구조에 한국적인 선율과 장단을 접목하여 첼로가야금의 새로운 스타일을 더했다.</p>		

구 분	내 용
	<p>3. 사막의 밤 F.A.E. (5분 30초) F. A. E. 는 독일어로 'Frei aber einsam'의 줄임말로, 자유롭지만 고독한 상태를 뜻한다. 때로는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타인과 함께 자유롭기 위한 살핌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했다. F(파), A(라), E(미) 음정들을 중심으로 작곡한 곡이기도 하다.</p> <p>5. Fiserman (6분) 민요 뱃노래를 모티브로 만든 곡으로, 바다의 풍경과 함께 한 어부가 겪는 인생의 굴곡과 서사를 다양한 첼로와 가야금의 주법과 멜로로 표현 하였다.</p> <p>6. 운하 (6분) 독일의 아후리히라는 도시의 운하를 표현한 곡으로, 독일에서 만나 한국에서 활동하기까지의 첼로가야금의 여정을 담아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대체 불가능한 살핌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했다.</p> <p>7. 엇 (4분30초) 2집 신곡으로 국악의 엇모리 장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변주를 통해 12현 가야금과 첼로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p> <p>8. 바다소리 (8분) 온전히 바다만을 상상한다. 바다의 고요함, 파도의 출렁임, 바다의 아름다움을 담은 곡이다. '운하'가 자연의 다정한 살핌을 표현한 곡이라면, '바다소리'는 자연의 우아함과 동시에 강한 힘과 파괴력을 보여줌으로서 인간이 자연에게 주어야 하는 살핌에 주목하고자 한다.</p> <p>9. 한양 (3분 30초) 조선시대 한양의 저잣거리의 느낌을 상상하며 만든 곡. 첼로와 가야금의 퍼커시브한 연주가 질주하는 듯한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강한 리듬감을 더하여 공연의 절정을 장식하는 곡이다.</p>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연장의 공연 프로그램의 다양화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이 만나 전통을 기반으로 대중적인 언어로 연주하는 첼로가야금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첼로'공연을 보러 왔던 클래식 애호가는 '가야금'이라는 악기의 매력을 느끼고 다음 공연엔 '가야금 산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 예술의 부흥과 예술향유의 다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아이디어 제공 첼로가야금은 미니멈에서 맥시멈을 고집어내는 팀으로 첼로, 가야금 단 두 악기만으로 공연을 한다. 이질적인 두 악기가 만나 현의 울림, 소리 내는 주법 등을 다양하게 변형하며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내며, 첼로가야금의 무대를 통해 관객 또는 지역 예술가, 기획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악 4 악단광칠 : 악단광칠 콘서트 <매우취라!>

구분	내용		
공연단체명	악단광칠		
공연명	악단광칠 콘서트 <매우취라!>		
단체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adg7.modoo.at/
실무자명	정예람	E-mail	adg7music@gmail.com
		연락처	(02) 583-9979
단체소개	<p style="text-align: center;">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대체불가 에너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낸 매혹적인 사운드</p> <p style="text-align: center;">음악을 해서 악단, 광복 70주년에 태어나 광칠!</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width: 600px;"> <p>악단광칠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결성했다. 지금의 북한 지역인 황해도 옛 음악을 원천으로 다양한 음악적 창작을 시도해 전통과 현대를 과감히 넘나드는 밴드다. 이들의 과감한 음악적 일탈은 우리들의 일상에 환상을 선사한다. 전통보컬과 국악기만으로 풍성한 밴드 사운드를 보이며 강렬하고 유쾌함으로 무대를 압도한다.</p> <p>세계 최대 월드뮤직마켓인 WOMEX19, globalFEST를 통한 성공적인 세계무대 데뷔를 시작으로, New York Times, NPR Music를 비롯하여 전세계 음악 관계자들이 극찬해 마지않는, 국가불문 장르불문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강력한 밴드이다. 공연과 방송계를 중흥무진하며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p> </div> </div>		
공연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4,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1~3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2, 3, 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1~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3,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1~5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1~5주)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2.29.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B트랙 선정(지원금 2700만원) 악단광칠 단독콘서트 <매우취라!> <p><단체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0.11.-15. 대만월드뮤직페스티벌 <ADG7> ○ 2023.06.22.-07.18. 악단광칠 글래스톤베리, 북미투어 ○ 2023.03.07.-21. WOMAD <ADG7> 호주 WOMADelaide, 뉴질랜드 WOMADNZ ○ 2022.12.29. 왓차홀, 악단광칠 단독콘서트 <매우취라!>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9.16.-12.17. 방방곡곡 문화공감 <인생 꽃 갈네> 인천남동소래아트홀 등 ○ 2022.08.19. NPR Tiny Desk ○ 2021.11.02.-23. 악단광칠 미국투어 <ADG7> 미국 KEXP 외 ○ 2021.06.12.~12.05. 방방곡곡 문화공감 <인생 꽃 갈네> 김포아트홀 등 ○ 2021.07.09. 악단광칠 단독 콘서트 <악단광칠> 서교스퀘어 		
공연영상	https://youtu.be/w0gXJ12eon8?si=AuQsS0ITTUTm98WA https://youtu.be/Tny3crTT13w?si=0_JsiulxjC6l9x5Y		
참여인원	총 14명 (출연진 9명 / 스태프 5명)		
소요시간	총 6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20-40 문화예술 애호가 / 국악, 음악 장르 선호자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0m)×높이(5m)×깊이(8m)	덧마루(3600*2400mm)
기타 사항	백라인 요청 극장과 협의하여 진행		
기획 및 제작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를 뒤흔든 압도적인 에너지로 만나는 오늘의 관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단광칠은 국악계에서도 미지의 영역이었던 북한지역 황해도 굿음악과 서도민요를 변형은 최소화하되 현대적으로 풀어내어 이 시대 관객에게 통하는 우리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 활발한 국내 활동에 이어 해외 페스티벌 초청 및 월드투어로 해외 관객까지 사로잡은 악단광칠은 언어를 초월한 압도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빛냈다. - 노련하게 무대를 장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관객에게는 가사의 말맛까지 전달해 오늘날 관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 자유를 향한 일탈의 노래,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렬한 굿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단광칠은 강렬함으로 무장한 현대적인 굿판으로 전국의 관객을 만나왔다. 이번 무대는 현대화 작업의 절정을 이룬 2집 수록곡과 미발매 신곡으로 구성된 셋리스트를 통해 새로운 무대로 변신을 꾀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악단광칠의 		

구 분	내 용
	<p>색깔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끈다. '위로', '자유', '일탈'을 키워드로 경쾌하고 때로는 농염하게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p> <p>○ 극장의 레퍼토리 다양화를 통한 국악 관객 개발 및 저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식음악, 뮤지컬이 아닌 창작국악은 국내 극장의 초청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로 인한 관객의 국악 향유 기회 또한 제한적이다. 관객의 창작국악 경험 부족은 자연스레 관객 개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 악단광철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창작국악을 극장에 선보임으로써 관객에게 새로운 예술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관객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p>컨셉 및 주제</p>	 <p>삶이 그대를 힘들게 할 때도, 즐거울 때도 이렇게 외치자. 인생 꽃 같네!</p> <p>인생에서 삶의 어두운 면을 마주할 때, 새로운 희망이 곧 온다는 거짓 위로를 주고 싶지 않다. 어둠의 중심에서 눈을 크게 뜨는 것을 제안한다. 그 극단에 노래가 있고, 몸을 흔드는 춤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구호 말고, 그냥 당신이 아름답다고 외치는 노래. 춤추고 함께 노래하는 이 순간, 집단의 즐거움과 극한의 해방감을 마주한다.</p>
<p>내용 및 특징</p>	<p>○ 미발매 신곡으로 새롭게 구성한 셋리스트</p> <p>#1. 와대버 [03:40] https://youtu.be/qlurxof7QMA?t=3</p> <p>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이겨내려 애쓰는 삶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위로의 말을 보낸다.</p> <p>#2. 어차 [05:10] https://youtu.be/qlurxof7QMA?t=223</p> <p>서해안 배연신 곳에 있는 뱃노래를 모티브로 했다. 악단광철의 음악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만선의 기쁨처럼 행복과 흥이 가득 차기를 바란다.</p> <p>#3. 영정거리 [05:10] https://youtu.be/qlurxof7QMA?t=622</p> <p>'황해도 곳의 '영정거리'를 새롭게 재해석한 곡이다. 원곡에선 여러 무녀의 갖가지 음색이 뒤섞인 목소리가 몽환적이면서도 강렬하다. 옛 노래임에도 현대적인 사운드가 인상깊다.</p>


구 분	내 용
	<p>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악단광칠의 소리를 담았다.</p> <p>#4. 히히 [05:03] https://youtu.be/qlurxof7QMA?t=1076</p> <p>탈출구 없는 갑갑한 삶을 자조적인 가사로 담았다. 짧은 선율이 반복을 더하며 깊이, 더 깊이 들어간다.</p> <p>#5. 복대감 [04:17] https://youtu.be/w0gXJ12eon8?t=5210 *미발매곡 선공개</p> <p>'강렬하면서도 귀엽고 신비롭지만 친근한 한국의 도깨비 이야기. 어디로 될지 모르는 신비한 존재들이 뛰어논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신명나게 날뛰는 무녀가 있다. 도깨비들과 뛰어노는 광칠이의 발랄함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p> <p>#6. 리크나 우그나드카 [04:22] https://youtu.be/w0gXJ12eon8?t=4914 *미발매곡 선공개</p> <p>'황해도에서 전승되는 무속의례 만수대탁굿에서 영감을 받았다. 번창과 가족들의 건강, 노인의 불로장생 등 산 사람의 길한 복을 빌고, 동시에 조상들은 물론이고 살아 있는 노인들도 죽은 뒤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현대인들의 세상만사 부정과 액운을 막아주고 기운을 밀어주는 "이만하면 되었고, 잘났다"라는 공감의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한다.</p> <p>#7. 맞이를 가요 [03:57] https://youtu.be/qlurxof7QMA?t=2191</p> <p>늦은 밤 꺼지지 않는 빌라의 불빛, 저마다 각자 무슨 외로운 사연으로 밤을 새나. 당신의 고독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중을 간다.</p> <p>#8. 북청 [06:38] https://youtu.be/qlurxof7QMA?t=2528</p> <p>북청사자놀음의 장단과 통소가락을 모티브로 하여 악단광칠의 스타일로 새롭게 재해석한 곡이다.</p> <p>#9. 노자노자 [05:01] https://youtu.be/qlurxof7QMA?t=3029</p> <p>'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는 이제 옛 말. 젊어서는 사랑과 일에 치이고, 이제 살만하다, 놀아보자 싶으니 놀 방법도 체력도 없다. 오늘을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덧없는 세월은 저만치 가고 있으니.</p> <p>#10. 얼싸 [14:00] https://youtu.be/rfgpYPLrBTw</p> <p>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소망은 쉽이 없다. 모두가 크고 작은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같은 삶의 터전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기도 한다. 굿판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듯이 모든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악단광칠이 빌어준다.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의 선율을 차용하여 만들었다.</p> <p>#11. MOON 굿 [03:53] https://youtu.be/w0gXJ12eon8?t=275 *미발매곡 선공개</p> <p>전통 굿의 '문굿'은 문을 열어 신들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다. 광칠이는 문굿을 보고 피리부는 만월이처럼 둥근 어여쁜 달을 보고 함께 손잡고 춤추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렸다. 현대판 강강술래!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저 달이 떠 있는 우주에서 춤춰보자!</p> <p style="text-align: right;">*프로그램은 현장 상황에 의해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p>
기대효과	<p>○ [공연장] 지역 극장의 플랫폼 역할 강화</p> <p>-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예술단체는 설 무대가 적고 관객의 문화 향유 기회는 한정적이다. 풍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p>

구 분	내 용
	<p>구하고 지역 극장은 계속 공연(콘텐츠)와 지역 관객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지역 내 꾸준한 관객 개발과 이들의 예술 향유를 위한 우수한 기획공연 유치, 네트워킹 조성을 통해 지역의 예술 생태계 안에서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p>○ [악단광칠] 팬을 만드는 민간예술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단광칠은 민간의 영역에서 전국을 넘어 해외진출까지 성공한 이례적인 사례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연 콘텐츠는 전국의 극장과의 단단한 연결을 통해 국내 유통망을 형성 및 확대할 것이다. - 유통의 확대로 예술단체의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팬을 만드는 생명력 강한 예술단체로 거듭날 것이다. <p>○ [지역민·관객] 지역 내 예술 향유 구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의 경우 서울 외 지역에선 뮤지컬 공연이 적어 공연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이른바 '지방 관극러'가 있다. 이는 지역의 관객들이 지역 내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하나의 예다. - 관객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①거주지 안의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②예술단체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지역민의 지속적인 예술 향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p>◆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극장의 다장르화를 촉진하여 관객에게 새로운 예술경험 제공, 전통예술 저변 확대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p>

국악 5 (주)더원아트코리아 : 이부산의 <타의 향_打의 쉼>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주)더원아트코리아		
공연명	이부산의 <타의 향_打의 쉼>		
단체 소재지	인천	홈페이지	http://www.theoneartkorea.com
실무자명	한수민	E-mail	hsm@the1art.com
		연락처	(032) 525-2526
단체소개	<p>2016. 06. (주)더원아트코리아 설립 2017. 04.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9. 05.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2020. 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21. 02. 서울지점 설립</p> <p>1. 더원아트코리아는 예술가들에게는 합리적인 대우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문화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전달하여 문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제2019-101호) 이다.</p> <p>2. 단체이념</p> <p style="text-align: center;">재미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담당하게 그렇게 우리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p> <p>3. 활동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공연예술 브랜드 개발 : ㅏㅏ하다 페스티벌, 서울연희대전 등 - 전통공연단체 매니지먼트 : 국악밴드 클랜타몽, 도리, 이부산설장고연구소 등 - 공연예술축제 및 행사 대행 - 공연기획 및 홍보 마케팅 <p>☞ 더원아트코리아는 전통공연시장의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설립된 공연기획사이다. 전통예술인의 활동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다양한 행사대행 등을 통해 역량을 쌓고, 또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일부를 전통공연예술브랜드 개발 및 단체들에 후원을 하며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p> <p>☞ 그 중에서도 이번 이부산의 타의 향 공연은 이부산 명인에 대한 공공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획하게 된 프로젝트이다. 이부산 명인 활동 65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꾸준히 활동하던 타의 향 공연을 기획력으로 더욱 견고히 하며 2024년 5월 22일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진행을 앞두고 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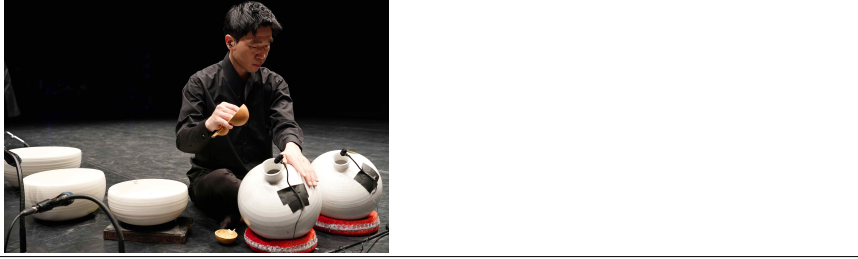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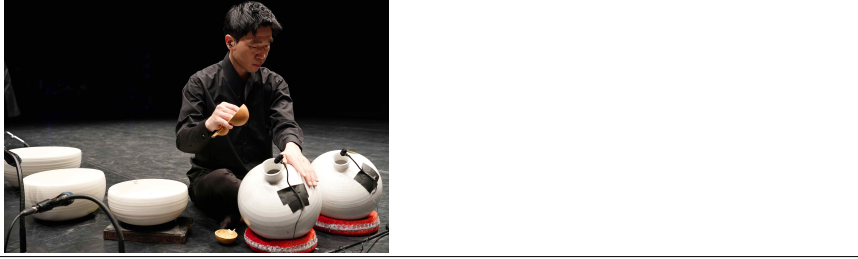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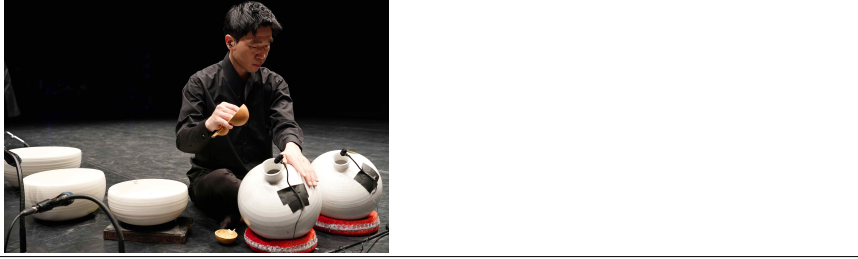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11.10. 전설의 설장고 이부산 <打的 쯤> /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 2014.11.21. 전설의 설장고 이부산 <打的 쯤> /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극장 ○ 2016.11.30. 전설의 설장고 이부산의 <打的 쯤> / 도봉구민회관 대극장 ○ 2019.12.20. 타의 향 시즌2 [Legend to Legend] /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024.05.22. 이부산 65년 기념공연 <打的 쯤> /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예정)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11.23. ~ 11.26.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 ㅈㅈ하다 페스티벌 2. 2023.10.08. 국립국악원 우면당 / 서울연희대전 '북 대전' 3. 2023.06.23. 국악밴드 클랜타몽 2집 콘서트 / 노들섬 라이브 홀 4. 2022.11.09. ~ 11.11.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 ㅈㅈ하다 페스티벌 5. 2022.07.03. 국립국악원 우면당 / 서울연희대전 '장구대전' 6. 2021.11.23.~23 / 11.27.~28. 국립중앙극장 별오름 극장 / ㅈㅈ하다 페스티벌 		
공연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youtu.be/0VGA14-fe1w?si=ymaUAM220P442GnM 타의 향 스팟영상(2015) ○ https://youtu.be/D2vjXzRhVbc?si=PTToTBPCl8yb1wn9u 2024년 타의 향 티저 		
참여인원	총 79명 (출연진 64명 / 스태프 15명)		
소요시간	총 9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20~60대 전통예술 수요층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0m)×높이(5m)× 깊이(10m)	무대시설
기타 사항	☞ 인트로 영상 있음(샤막, 빔 프로젝터 필요)		
기획 및 제작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부산 명인은 호남과 영남 국악의 전성기를 몸소 체험한 예술인이다. 그의 예술 여정은 호남 우도농악의 화려한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구와 함께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차세대 국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예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 - 그의 연주는 이제 한 사람의 연주가 아니라 이 시대가 지켜나가야 할 공공의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 - 지켜야 마땅하고, 보존해야 마땅하며, 알려야 마땅하다. 		
컨셉 및 주제	- 시간(세월)의 흐름 안에서 한 분야를 꾸준히 지켜온 명인의 모습을 담아낸다.		
내용 및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연 내용 및 특징 - 전통연희 공연에서는 보기 힘든 대규모 협업(약 70여명)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이부산의 가치를 이어받는 30명의 프로 연주자 집단. 이부산의 일대기를 시간순으로 여행하며 협업하는 호남여성농악, 박경량의 소반춤, 진주 삼천포 농악, 그리고 이부산의 연주 메이트 조갑용의 협연은 연희판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에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다. 		

구 분	내 용																					
	<p>2. 공연수정 계획 등 기존의 프로그램 나열식 공연에서 무대미술과 조명 디자인을 통해 시간(세월)의 흐름을 연출한다.</p> <p>3. 공연프로그램</p> <table border="1" data-bbox="363 562 1412 846"> <thead> <tr> <th>순서</th> <th>프로그램 세부 내용</th> <th>소요시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영남성주풀이</td> <td>10분</td> </tr> <tr> <td>2</td> <td>전환 영상 (이부산의 가치 소개)</td> <td>2분</td> </tr> <tr> <td>3</td> <td>이부산류 앓은반 설장고</td> <td>10분</td> </tr> <tr> <td>4</td> <td>삼도사물놀이</td> <td>15분</td> </tr> <tr> <td>5</td> <td>이부산류 선반 설장고</td> <td>10분</td> </tr> <tr> <td>6</td> <td>판굿 (타의 향_호남여성농악, 박경량, 진주삼천포농악, 개인놀이)</td> <td>40분</td> </tr> </tbody> </table> <div data-bbox="375 862 1412 1400">  </div>	순서	프로그램 세부 내용	소요시간	1	영남성주풀이	10분	2	전환 영상 (이부산의 가치 소개)	2분	3	이부산류 앓은반 설장고	10분	4	삼도사물놀이	15분	5	이부산류 선반 설장고	10분	6	판굿 (타의 향_호남여성농악, 박경량, 진주삼천포농악, 개인놀이)	40분
순서	프로그램 세부 내용	소요시간																				
1	영남성주풀이	10분																				
2	전환 영상 (이부산의 가치 소개)	2분																				
3	이부산류 앓은반 설장고	10분																				
4	삼도사물놀이	15분																				
5	이부산류 선반 설장고	10분																				
6	판굿 (타의 향_호남여성농악, 박경량, 진주삼천포농악, 개인놀이)	40분																				
<p>기대효과</p>	<p>☞ 순수전통공연예술의 가치 발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전통예술 특히 세월을 몸에 담은 이들이 뿜어내는 아 우리는 현장에서 느껴야 알 수 있다. 현재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환경은 창작지원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진짜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가치를 가진 예술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 한국의 전통예술이 대단한 것은 세월의 모습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악은 평생을 학습해야 하는 장르라고 한다. 하지만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연령이 되면 그 깊이의 표현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 부딪히게 된다. - 하지만 이부산 명인은 좀 특이하다. 70의 고령임에도 현재 프로활동을 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파워를 내고 있으며 세월을 담아낸 저정거림 까지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부산 명인이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켜내고 알리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 본 단체를 포함 다양한 관련 지원기관들은 이러한 전통예술의 품격을 몸에 지닌 예술인들을 발굴 해내고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 공연은 순수전통공연예술의 본연의 가치를 대중들이 알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국악 6 공간서리서리 :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율기'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공간서리서리		
공연명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율기'		
단체 소재지	경기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3%B5%EA%B0%84%EC%84%9C%EB%A6%AC%EC%84%9C%EB%A6%AC
실무자명	정우인	E-mail	nunnui@naver.com
		연락처	(02) 383-7580
단체소개	<p><공간서리서리>는 흙으로 만든 전통 관악기 '훈'을 알리고자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흙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인류가 최초로 만든 관악기는 어떤 악기일까? 이 2개의 질문에 해당 되는 악기가 바로 '훈'이라는 악기이다.</p> <p>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 흙으로 만든 국악기 '훈'에 대한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악기를 기억하거나 본 적이 없다. 전통 악기이지만 명맥이 끊긴 안타까운 악기로 국립국악원 악기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악기이다. <공간서리서리>는 2013년 도자기 관악기 '훈'을 복원하고 개량하여 다양한 전통음악과 창작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를 만들었다. (악기 특허 제 10-2279532)</p> <p><공간서리서리>는 흙으로 만든 악기'훈'과 '율기'를 소개하는 음악공연을 만들었다. 전통음악을 전공한 <공간서리서리> 대표 송경근은 새로운 전통악기를 통한 국악을 창작하고 소개하는 음악을 만들고 있다.</p> <p>2023년 '송훈'을 소개한 동영상 콘텐츠는 96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p> <p>https://www.youtube.com/watch?v=zyUyDgSpjqA</p> <p><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 - 송훈 장인 -송경근></p> <p>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공연예술 창작산실>에 2018년<도공지몽>/ 2022년<태고의 소리 훈과 율기>에 이어 2024<도경 프로젝트>까지 공간서리서리의 새로운 전통악기 프로젝트는 많은 곳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2.10.~02.11.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선정 ○ 2023.11.18. 경인교육대학교 지누e음홀 개관기념공연 진행 ○ 2024. 03.09. 국립한글박물관 3월 선정작품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02.10.~02.11.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지원사업 선정작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태고의 소리 '훈과 율기' > 2 2023.11.18. 경인교육대학교 지누e음홀 개관기념공연 진행 KB 지누 e음홀 <태고의 소리 '훈과 율기' > 		

구분	내용		
	3 2024. 03.09. 국립한글박물관 3월 선정작품 국립 한글 박물관내 공연장 <태고의 소리 '훈과 울기' >		
공연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Yjxh2QyU https://www.youtube.com/watch?v=B9ooMlzO6I https://www.youtube.com/watch?v=zyUyDgSpjqA		
참여인원	총 20명 (출연진 7명 / 스태프 13명)		
소요시간	총 8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전 연령층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 너비(8m)× 높이(4m)× 깊이(6m)	조명 바텐 최소 4개, 덧마루: 3*6/16장/높이45cm
기타 사항	공연 후 공연장 로비에서 악기체험 및 악기전시 행사		
			
기획 및 제작의도	<p>1116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훈'으로 만든 악기가 건너왔다. 악기 이름은 '훈'. 이 악기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된 악기이다. 하지만 1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악기를 보려면 국립국악원 악기박물관에 가야지만 볼 수가 있는 악기가 되었다.</p> <p>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중국에서의 이 악기 이름은 'Xun (중국식발음 쉰) 으로 불리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악기가 국악기로 음악교과서에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의 악기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p> <p><공간서리서리>는 이러한 안타까움에 악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2018년 기존의 5개의 지공의 악기에서 1개를 더해 6개의 지공의 악기인 '송훈'을 만들어 다양한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있다.</p>		

구 분	내 용																				
	<p>악기를 만들고 새로운 연주법을 찾고 오롯이 전통의 연주법으로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흙에서 만든 새로운 타악기 '울기' 와 '도경' 까지 만들어 새로운 음색을 찾고 있다.</p> <p>이제 흙은 우리나라 국악기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었다. 그리고 흙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음색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감성들을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p>																				
<p>컨셉 및 주제</p>	<p>국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 (금,석,사,죽,포,토,혁,목) 중 토에 해당 되는 소재 로 만든 4개의 창작 악기를 소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363 734 1417 1653"> <tr> <td data-bbox="363 734 539 947"> <p>도자기 관악기 '훈' 소개</p> </td> <td colspan="3" data-bbox="539 734 1417 947">  </td> </tr> <tr> <td data-bbox="363 947 539 1171"> <p>도자기 타악기 '울기' 소개</p> </td> <td colspan="3" data-bbox="539 947 1417 1171">  </td> </tr> <tr> <td data-bbox="363 1171 539 1440"> <p>도자기 타악기 '허박' 소개</p> </td> <td colspan="3" data-bbox="539 1171 1417 1440">  </td> </tr> <tr> <td data-bbox="363 1440 539 1653"> <p>도자기 편경 '도경' 소개</p> </td> <td colspan="3" data-bbox="539 1440 1417 1653">  </td> </tr> </table>	<p>도자기 관악기 '훈' 소개</p>				<p>도자기 타악기 '울기' 소개</p>				<p>도자기 타악기 '허박' 소개</p>				<p>도자기 편경 '도경' 소개</p>							
<p>도자기 관악기 '훈' 소개</p>																					
<p>도자기 타악기 '울기' 소개</p>																					
<p>도자기 타악기 '허박' 소개</p>																					
<p>도자기 편경 '도경' 소개</p>																					
<p>내용 및 특징</p>	<table border="1" data-bbox="363 1686 1417 2112"> <thead> <tr> <th colspan="5" data-bbox="363 1686 1417 1720">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울기'</th> </tr> <tr> <th data-bbox="363 1720 419 1798">순서</th> <th data-bbox="419 1720 475 1798">구분</th> <th data-bbox="475 1720 603 1798">프로그램명</th> <th data-bbox="603 1720 1361 1798">세부 내용(곡설명 및 악기)</th> <th data-bbox="1361 1720 1417 1798">소요 시간 (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3 1798 419 1989">1</td> <td data-bbox="419 1798 475 1989">연주</td> <td data-bbox="475 1798 603 1989">거닐</td> <td data-bbox="603 1798 1361 1989"> <p>송훈 솔로곡. 우리민요 태평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솔로곡. 태평가의 선율 중 '짜증을 내어서 무얼하나~~~' 에 나오는 선율이 송훈으로 변형되어 연주되어진다. 거닐은 거닐다 라는 뜻으로 맑은 날 바람을 맞으며 숲속 길을 혼자 걸어 다니며 흥얼거리는 느낌의 곡이다 .</p> <p>[송훈]</p> </td> <td data-bbox="1361 1798 1417 1989">4'</td> </tr> <tr> <td data-bbox="363 1989 419 2112">2</td> <td data-bbox="419 1989 475 2112">연주</td> <td data-bbox="475 1989 603 2112">송훈지곡</td> <td data-bbox="603 1989 1361 2112"> <p>송훈지곡은 송훈을 주제로 송훈을 위한 곡이라는 뜻의 제목이다 전통음악 중 정악에 해당되는 청성곡과 상량산 선율이 사용이 되었으며 박자가 정해지지 않고 피아노와 송훈의 느낌으로 연주하는 곡 이다 [송훈. 피아노]</p> </td> <td data-bbox="1361 1989 1417 2112">4'</td> </tr> </tbody> </table>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울기'					순서	구분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곡설명 및 악기)	소요 시간 (분)	1	연주	거닐	<p>송훈 솔로곡. 우리민요 태평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솔로곡. 태평가의 선율 중 '짜증을 내어서 무얼하나~~~' 에 나오는 선율이 송훈으로 변형되어 연주되어진다. 거닐은 거닐다 라는 뜻으로 맑은 날 바람을 맞으며 숲속 길을 혼자 걸어 다니며 흥얼거리는 느낌의 곡이다 .</p> <p>[송훈]</p>	4'	2	연주	송훈지곡	<p>송훈지곡은 송훈을 주제로 송훈을 위한 곡이라는 뜻의 제목이다 전통음악 중 정악에 해당되는 청성곡과 상량산 선율이 사용이 되었으며 박자가 정해지지 않고 피아노와 송훈의 느낌으로 연주하는 곡 이다 [송훈. 피아노]</p>	4'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울기'																					
순서	구분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곡설명 및 악기)	소요 시간 (분)																	
1	연주	거닐	<p>송훈 솔로곡. 우리민요 태평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솔로곡. 태평가의 선율 중 '짜증을 내어서 무얼하나~~~' 에 나오는 선율이 송훈으로 변형되어 연주되어진다. 거닐은 거닐다 라는 뜻으로 맑은 날 바람을 맞으며 숲속 길을 혼자 걸어 다니며 흥얼거리는 느낌의 곡이다 .</p> <p>[송훈]</p>	4'																	
2	연주	송훈지곡	<p>송훈지곡은 송훈을 주제로 송훈을 위한 곡이라는 뜻의 제목이다 전통음악 중 정악에 해당되는 청성곡과 상량산 선율이 사용이 되었으며 박자가 정해지지 않고 피아노와 송훈의 느낌으로 연주하는 곡 이다 [송훈. 피아노]</p>	4'																	

구 분		내 용		
	설명	곡 / 악기 설명	거늬, 송훈지곡 / 송훈의 역사, 악기 설명	5'
3	연주	훈기상화	도자기관악기 '훈'과 그릇악기 '울기'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뜻으로 흙에서 만들어지는 맑은 음색이 인상적인 곡이다 울기는 음정이 있는 그릇이란 뜻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릇에서 음정을 찾아서 연주하는 타악기이다. [송훈, 양금, 울기, 피아노]	5'
4	연주	호수	잔잔한 호수의 이미지, 물결 그안의 많은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다닌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이다. [송훈. 피아노]	5'
5	연주	달달달	커다란 울기가 3개가 나온다 . 하얀색의 이 울기는 마치 달을 연상한다. 타악연주자 '박승원' 이 울기를 솔로로 연주한다 5박의 리듬위에 송훈과 울기 그리고 첼로의 연주가 이어진다	10'
	설명	곡 / 악기 설명	훈기상화, 호수 / 울기	5'
6		문묘제례악 다시	모듈라신스라는 DIY 신디사이저로 전통음악 문묘제례악을 송훈과 함께 연주한다. 문묘제례악은 훈으로 연주하는 유일한 전통음악으로 이번에 다시 편곡하여 연주할 예정이다	6'
7	연주	송훈산조	산조는 기악독주곡이다.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대금 산조 등 수많은 산조가 있다. 송훈산조는 송경근이 만들어 연주하는 산조이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서용석제 송경근류 훈산조'이다 작은 도자기에서 연주되는 산조의 음악, 색다른 산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송훈. 장구]	7'
8	연주	입추지음	'훈'의 음색이 가을과 같다는 뜻으로 기원전 악기'훈'의 표현을 입추지음이라고 해놓았다고 한다. 쓸쓸한 가을에 옛 친구가 떠오르는 음악이다. [송훈, 피아노, 타악]	5'
	설명	곡 / 악기 설명	송훈산조, 입추지음 / 전통 국악기	5'
9	연주	옛노래	사모곡이란 뜻의 음악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 음악극 <도자기의 비밀>의 주제음악이기도 하다. 조신시대 임진왜란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심당길'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연주하는 상상력으로 만든 음악 [송훈, 피아노, 타악]	5'
10	연주	산명	메아리라는 뜻의 제목 전자음악 단체인 이디오테잎의 제제와 함께 하는 콜라보 레이션	8'
총 13개 프로그램				8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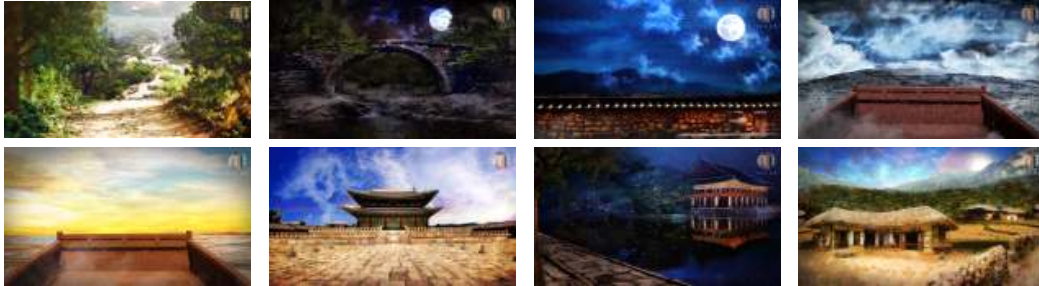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새로운 악기의 소개	<p>세상에 없는 악기를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악기의 연주법과 소재의 이해가 병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중에서도 전통악기를 복원하고 개량하는 일은 더욱이 어려운 일일 것이다. 새로운 악기에서 만나는 새로운 음색을 만나는 일은 관객에게 색다른 감성을 전달할 것이다.</p>
	전통음악의 새로운 시도	<p>전통음악은 오랜 시간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음악이다 특히 정악과 산조라는 전통음악은 기악에 있어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p> <p>'훈'으로 연주하는 산조 '도경'으로 연주하는 경풍년 '율기'로 연주하는 우리의 민요</p> <p>이러한 시도들은 현재는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후대의 음악인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훗날 전통음악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전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p>
	전통의 감성과 현대의 감성의 만남	<p>전통악기와 의외로 잘 어울리는 컨셉이 전자음악이다. 전자음악은 디지털의 표현이고, 국악기는 아날로그의 표현이다. 이 두 분야의 역량 있는 연주자와의 만남은 새로운 시너지를 공급할 것이다.</p>
	<p>영조, 정조 임금 국장 때 부장제도를 통해 무덤에 악기를 같이 묻었는데 도자기로 편경을 묻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공연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악기복원의 사실도 알린다.</p>	













국악 7 아름다운 우리문화 : 명품 마당놀이 '신뽕파전'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아름다운 우리문화		
공연명	명품 마당놀이 '신뽕파전'		
단체 소재지	경기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mashlove7
실무자명	박지혜	E-mail	mashlove7@naver.com
		연락처	(02) 6091-2014
단체소개	<p>'아름다운우리문화'는 예술인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올바르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만든 예술단체입니다.</p> <p>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은 가장 힘겨운 나라에서 특유의 근성으로 다시 일어나 2018년 기준 GDP 11위의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성장해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한국 전통예술은 경제와 더불어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과도기를 겪었습니다.</p> <p>아직 자리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음악, 춤, 연희, 전통예술은 국민들에게 다소 지루한 옛날의 문화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을 전공한 많은 예술인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창작활동을 멈춰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p> <p>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예술을 우리는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할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예술을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줘야 할까? 아름다운 전통예술을 전공한 예술인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무대에 설 수 있을까?</p> <p>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겪으며 우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p> <p>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알려보고자 모인 예술인들의 모임 '아름다운우리문화'는 우리 전통예술의 올바른 정립과 대중화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K-POP 등 한류 이후,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과 공연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교부 주최의 한국문화교류 공연에 참여하여 해외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한국전통예술공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p> <p>판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마당놀이 '심청전'을 시작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재해석하여 만들어 가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하여 전통공연을 즐겁게 만들어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배움터 인증을 받아 한국 문화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이후 전통예술 공연, 마당놀이 제작 등 우리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p>		

구 분	내 용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 및 단체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1.22 영천시민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3.10.19.~20 서산시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3.10.12 울진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3.10.07 남한산성아트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3.8.19 상주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2.12.23 단양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2.11.05 보령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2.10.19 화강문화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2.05.12. 창녕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1.11.13. 인제하늘내린센터 대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1.11.12. 의령군민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1.10.07 고창문화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2021.06.10. 완도문화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선정 ○ 주연배우 서정금, 김학용, 박자희 임방울 국악제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 안무가 이승주 제26회 한밭국악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 		
공연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drive.google.com/file/d/19SZ_Jn0VXTZDCeMy4P-ow2QL5SXXffTR/view 공연 전체 영상 ○ https://blog.naver.com/mashlove7/223349071417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 https://youtu.be/5xJhWYo-vOU?si=eaz9sPebQ5ACn5uk 		
참여인원	총 54명 (출연진 37명 / 스태프 17명)		
소요시간	총 9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전 연령층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무대면적 무대너비(9m)×높이(5m)× 깊이(5m) 이상	무대시설 조명 바텐 수 3개 이상, 의 자, 보면대 15개 등
기타 사항	300만 화소 빔프로젝트 공연팀 설치 예정		
기획 및 제작의도	<p>Again 1982! 마당놀이 창극의 새로운 부활!</p> <p>1982년 MBC마당놀이가 시작된 이후, 성황을 이루면서 암표상까지 나타났지만, 1994년 MBC와 극단 미추가 '마당놀이'라는 명칭을 두고, 상표권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MBC와 미추는 갈라서게 된다. 분쟁 이후, MBC는 코미디언, 가수 등 많은 연예인들을 등장 시키며 부활을 꿈꿨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마당놀이=창극'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그 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우여곡절을 겪은 마당놀이의 황금기는 2010년 MBC마당놀이-평강온달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재단법인으로 바뀐 국립극장의 초대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마당놀이 원조 연출가 손진책씨는 2014년 국립극장의 마당놀이를 부활시켰다. 국립극장의 무대에서 탄탄한 실력의 국립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마당놀이는 극장식 공연에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국립극장 마당놀이는 다시 많은 인기를 누리며 매년 겨울 매년 행렬이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마당놀이는 지방의 많은 예술회관에서는 볼 수 없기에 아쉬움의 목마름을 느껴야만 했다.</p> <p>김학용, 서정금, 이광복, 박자희, 이소연 등 판소리의 바탕이 탄탄하게 깔린 국립창극단의 배우들과 많은 예술인들이 1982년 마당놀이가 부흥했던 그 때로 돌아가 다</p>		

구 분	내 용
	<p>시 문화부흥을 일으키고자 한다. 30년간 250만의 관객을 동원했던 마당놀이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해학과 웃음 가득한 제2, 제3의 젊은 마당놀이패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p> <div data-bbox="657 445 1238 831" data-label="Image"> </div> <p>마당놀이 윤문식 김성녀 김종엽 트리오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국립창극단의 명창 트로िका 김학용(심봉사), 서정금(뽕덕), 이광복(황봉사) <마당놀이 '신뽕파전' 공연 장면></p> <p>재밌는 마당놀이 서울놈들만 보냐? 우리도 좀 보자!</p> <p>마당놀이의 주 관객들로 대부분 중장년층이 많다. 젊은 층들도 부모님을 모시고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모습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관람객 연령은 50대~70대 사이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서 지방의 노인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볼만한 공연이 없다는 것이 한 목소리이다. 국립극장 공연 중 티켓 판매율이 가장 높은 공연이 바로 마당놀이라는 점은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인 것이다. 이조차도 서울에만 한정적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이다 보니 지방의 한 70대 어르신은 “재밌는 마당놀이는 서울놈들만 보냐? 우리도 좀 보자!”며, 푸념을 늘어놓으신 걸 들은 적이 있다. 아직도 지방문예회관에서는 판소리 한 대목에 객석 여기저기서 “얼씨구 잘한다”와 같은 추임새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반면에 창자의 판소리 실력이 부족하면 금방 추임새를 하던 입을 닫고 연습을 더 해야겠다고 말 할 정도로 귀명창이 많다.</p> <p>창극 '심청전'은 관객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관객들은 심청이가 힘들어 할 때 같이 울고, 해학이 있는 장면에서는 같이 웃으며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된다는 '판'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시골의 농사일로 또는 집안일로 바쁜 어른들에게 깊이 있는 판소리 한 대목에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놀이판을 만들고자 한다.</p>
<p>내용 및 특징</p>	<p>1. 국립창극단 마당놀이 주역 명창들의 무대 김학용, 서정금, 이소연, 박자희, 이광복 등 국립극장 마당놀이의 주역인 대한민국 최고 명창들을 중심으로 3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최초의 민간국악관현악단인 중앙국악관현악단, JTBC 풍류대장 TOP5 강성현 연희단, 2021 한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이승주 무용단 등 37명의 출연진들이 함께 만들어 판소리와 국악이 주는 최고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p> <p>2. 마당놀이 특유의 풍자와 해학! 2024년을 이야기하다! 마당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풍자와 해학속에서 관객들은 가려운 곳을 긁는 것처럼 마음껏 웃는다. 코로나 팬데믹,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첨단과학문명 속에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른들... 매년 효녀로 나오는 심청이가 못마땅한 뽕덕이는 2024년 할 말이 너무나 많다.</p>



구 분	내 용
	<p>3. 2024년 3D로 업그레이드된 무대 배경</p> <p>공연은 매번 변화해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가는 공연문화의 흐름에 맞춰 배경화면을 3D영상으로 새롭게 만들어 다양한 효과를 주었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훨씬 더 현장감 있는 무대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과거의 무대배경이 2D의 그림 형태였다면 2024년에는 3D의 움직이는 배경영상으로 사실감 넘치는 공연을 위해 8가지 배경영상에 과감히 투자하였다. 2024년에는 보다 더 새로운 3D영상 배경으로 찾아간다.</p>  <p>2024년에는 현대 기술력이 극대화 된 3만안시 이상의 빔 프로젝터와 샤막, 특수조명을 사용하여 현실감있는 무대배경을 제공한다.</p> <p><프로그램 내용></p> <p>뽕덕은 심봉사 황봉사와 함께 여행(공연할 지역)을 떠난다. 관객들에게 인사를 시작으로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p> <p>출생하자마자 엄마를 잃은 심청이는 아버지 심봉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15세가 되어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효심이 지극한 심청이는 임당수 바닷물에 뛰어들게 되고, 이에 감동한 용왕은 심청이를 황후의 신분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이후 심청이는 황후의 신분으로 맹인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고, 심봉사의 눈도 함께 뜨게 된다는 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각색하여 신명나는 마당놀이 한판으로 공연한다.</p> <p>1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장 여는 마당 2장 생과 사 3장 뽕덕과 황봉사 4장 심청의 성장 5장 공양미 삼백석 6장 행선날  <p>2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장 궁궐 2장 내가 주인공 뽕덕이 3장 뽕덕과 황봉사2 4장 맹인잔치 5장 해후 

구 분	내 용										
	<p>3) 공연수정 계획 등</p> <p>1. 공연 지역 맞춤 대본 수정</p> <p>- 문화예술회관 스태프 및 지역 관계자 등 협의를 통해 지역의 명소, 특산품, 역사와 전통 등을 충분히 공유 소통하여 공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하여 대본을 수정하여 공연한다.</p> <p>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조금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마당놀이의 특성을 살려 관객과 배우의 경계를 허물고 한국의 대표적인 '판'문화를 무대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린다.</p> <p>2. 지역 맞춤 소품 준비</p> <p>- 지역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장기', '특산품' 등 지역 맞춤 소품 준비하여 무대에 올려 관객들에게 지역민으로써의 자존감을 올리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 및 관광을 위해 함께 소통한다.</p> <p>예) (만장기 문구 예시 : 천년의빛영광, 어머니품장흥, 평화의땅연천)</p>										
<p>기대효과</p>	<p>○ 기대효과 및 성과 (방방곡곡 우수공연 '명품 마당놀이 신뎡파전')</p> <table border="1" data-bbox="368 902 1281 1619"> <tr> <td data-bbox="368 902 823 1055">  <p>명품 마당놀이 <신뎡파전 2> - 서산 장르 연극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기간 2023.10.19. ~ 10.20</p> </td> <td data-bbox="823 902 1281 1055"> <p>1위 신뎡파전 2 서산</p> </td> </tr> <tr> <td data-bbox="368 1055 823 1207">  <p>국립창극단 <패왕별희> 장르 클래식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기간 2023.11.11. ~ 11.18</p> </td> <td data-bbox="823 1055 1281 1207"> <p>2위 국립창극단 패왕별희</p> </td> </tr> <tr> <td data-bbox="368 1207 823 1359">  <p>2023 다담茶談 장르 클래식 장소 국립국악원 기간 2023.03.29. ~ 11.29</p> </td> <td data-bbox="823 1207 1281 1359"> <p>3위 국립국악원 다담</p> </td> </tr> <tr> <td data-bbox="368 1359 823 1512">  <p>장사익 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 - 부산 장르 클래식 장소 드림씨어터 기간 2023.11.25.</p> </td> <td data-bbox="823 1359 1281 1512"> <p>4위 장사익 소리판 부산</p> </td> </tr> <tr> <td data-bbox="368 1512 823 1619">  <p>호러국악콘서트 - 귀곡산장 - 고흥 장르 콘서트 장소 대가야문화누리</p> </td> <td data-bbox="823 1512 1281 1619"> <p>5위 호러국악콘서트</p> </td> </tr> </table> <p>○ 2023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10월 국악장르 예매율 1위 선정 : 민간전통예술 공연 최초 국립단체를 넘어 대중화를 위한 성과</p> <p>○ 한국형 종합 예술의 '마당놀이'의 브랜드화/세계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p> <p>- 국악과 전통예술의 종합 예술 장르로 새롭게 브랜드화/세계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외국인들에게 한류 이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문화예술 시장에서 이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장르가 있을까?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p> <p>○ 극단 내 제작팀과 공연팀 시스템을 안착화 하고, 1980년대 마당놀이 대표주자들에서 2024년 새로운 공연 예술계 세대교체 견인</p> <p>- 1980년대 마당놀이 윤문식 김성녀 김종엽 트리오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2024년 국립창극단의 명창 트로이카 김학용(심봉사), 서정금(뽕덕), 이광복(황봉사)을 중심으로 '명품 마당놀이 브랜드화' 마련</p>	 <p>명품 마당놀이 <신뎡파전 2> - 서산 장르 연극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기간 2023.10.19. ~ 10.20</p>	<p>1위 신뎡파전 2 서산</p>	 <p>국립창극단 <패왕별희> 장르 클래식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기간 2023.11.11. ~ 11.18</p>	<p>2위 국립창극단 패왕별희</p>	 <p>2023 다담茶談 장르 클래식 장소 국립국악원 기간 2023.03.29. ~ 11.29</p>	<p>3위 국립국악원 다담</p>	 <p>장사익 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 - 부산 장르 클래식 장소 드림씨어터 기간 2023.11.25.</p>	<p>4위 장사익 소리판 부산</p>	 <p>호러국악콘서트 - 귀곡산장 - 고흥 장르 콘서트 장소 대가야문화누리</p>	<p>5위 호러국악콘서트</p>
 <p>명품 마당놀이 <신뎡파전 2> - 서산 장르 연극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기간 2023.10.19. ~ 10.20</p>	<p>1위 신뎡파전 2 서산</p>										
 <p>국립창극단 <패왕별희> 장르 클래식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기간 2023.11.11. ~ 11.18</p>	<p>2위 국립창극단 패왕별희</p>										
 <p>2023 다담茶談 장르 클래식 장소 국립국악원 기간 2023.03.29. ~ 11.29</p>	<p>3위 국립국악원 다담</p>										
 <p>장사익 소리판 사람이 사람을 만나 - 부산 장르 클래식 장소 드림씨어터 기간 2023.11.25.</p>	<p>4위 장사익 소리판 부산</p>										
 <p>호러국악콘서트 - 귀곡산장 - 고흥 장르 콘서트 장소 대가야문화누리</p>	<p>5위 호러국악콘서트</p>										


국악 8 사물놀이몰개 : Molgae Time Blend

구분	내용		
공연단체명	사물놀이몰개		
공연명	Molgae Time Blend		
단체 소재지	충북	홈페이지	www.molgae.com
실무자명	송용중	E-mail	h2mang@hanmail.net
		연락처	(043) 845-1324
단체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와 전통의 사물놀이 연주단체 1991년 충주에서 창단하며 국내 2,000여회 국외 250여회 연주활동을 하고있는 충청북도 지정 전문예술 단체 ○ 신구 조화가 어우러진 인력 구성 기획, 행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연자들은 20-30대로 구성되어 있어 신구 조화를 통한 새로운 예술 활동의 마중물이 되고 있음. ○ 사물놀이 1세대 다음을 이어가는 사물놀이 전문 연주 단체 사물놀이 음악은 물론 탕고, 피아노, 재즈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작업을 통한 창작 작품 제작과 발표는 물론 전통 사물놀이 음악을 통한 모로코 월드뮤직 페스티벌 개막공연 및 단독 공연, 중남미 4개국 공연 등 전통 사물놀이 전문 연주단체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2주, 3주, 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1~4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1~3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1~3주)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 ○ 2023년 10월 3일 / 충주시문화회관</p>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05.24. 충주시문화회관, 연금술사 2021.10.30.~12.06. 대전 자혜원 외 4곳, 신나는예술여행 2021.11.27. 울주문화예술회관, 길 FE 2021.11.29.~11.30. 충주시문화회관, 리부트사물놀이 2021.12.10. 유튜브, 뮤직비디오 "이바디" 2021.12.30. 충주시문화회관, 잇고 2022.09.27.~09.28. 충주시문화회관, 미르, 목계에 깃들다 2022.11.28. 교토 ROHM 시어터 (일본), 화합의 향 2022.12.06. 충주시문화회관, 대몽항쟁 충주 그대 이름은 "별초" 2023.05.03. 충주시문화회관, 깔범이의 생일 잔치 2023.03.30.~04.07. Anchorage PAC atwood concert hall (알래스카), 길-The Way 2023.06.27.~07.03. 브라티슬라바 시립극장 (슬로바키아), Culture Evening 30 2023.10.03. 충주시문화회관, Molgae Timeblend 2023.11.23. 성수아트홀, 꽃부리 2023.11.27. 충주시문화회관, 리부트사물놀이 		
공연영상	https://youtu.be/KjDiU9lrBBc		

구 분	내 용		
참여인원	총 23명 (출연진 12명 / 스태프 9명 / 기획 1명 / 홍보 1명)		
소요시간	총 9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전 연령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 13m* 무대높이 6m*깊이 10m	[덧마루] 4X9 (20장) / 4X6 (10장) 4X3 (4장) / 받침통(50ea) [극장막] 메인커튼 또는 하우스 커튼/ 드로우커튼/ 머리막/ 호리전트 커튼(화이트) [상부 전환 장치] setbatten 3개
기타 사항	공연의 진행은 극장의 컨디션에 따라 협의 가능		
기획 및 제작의도	<p>사물놀이 '몰개'는 1991년 창단되어 32년간 끊임없이 작품 발표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성찰을 통하여 다양한 실험적인 창작작품을 선보이며 명실상부 전통 타악 및 창작 작품 활동을 통해 전통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연장선 위에 사물놀이의 몰개만의 예술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타악 연희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동시대 타악 연희단체에게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고자 한다.</p>		
컨셉 및 주제	<p>'Molgae TimeBlend '는 우리 전통 타악 음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음악적으로 재해석하여 구성한 작품으로 전통 음악 어법을 전통 타악 연주를 통하여 우리 전통 타악 음악의 다음 한 발걸음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p>		
내용 및 특징	<p>1) 작품 특징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던 풍물은 기원과 축원의 소리요, 때론 군악으로 집단 의식에서 싹튼 놀이 양식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양식에 다양한 음악적 언어를 담고자 하였다. 연희 중 타악 中心의 새로운 시도와 사물놀이 음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양식을 제안하며 무엇보다 타악을 중심에 두며 창작된 작품</p> <p>2) 연출방향 작품의 세션은 과거, 현재, 미래 3가지 파트의 구조로 작품을 구성하였고 작품 내 음악곡은 모두 작·편곡하였으며 전통타악, 전통소리를 기반으로 뮤지션들의 창작의 한계를 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조명과 무대 소품 제작 등을 통하여 작품 완성도를 높이며 조명과 무대 소품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모던하고 다양한 색의 조합을 통하여 관객에게 우리 음악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연출하였음.</p> <p>3) 작품 수정 계획 - 초연 공연 이후 자체 평가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음악 구성에 대한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적 구</p>		

구 분	내 용
	<p>성 보강 및 편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이후 주요 스탭진들과 공연 영상을 통한 평가를 통하여 연출 조명 무대 등 연출부와 기술 스탭 회의를 통한 작품 보강 및 수정 작업 <p>4) 프로그램</p> <p>프리셋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크나큰 그늘과 바람을 막아주는 그 힘은 뿌리가 깊음에 있나니....</p> <p>1장 뿌리 (어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p> <p>#1. 시작과 기원 다가올 내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소리 의식이 펼쳐진다. 현생 인류와 함께 시작된 음악은 흥얼거리고 박수치며 발을 구르는 소리와 동작으로 기원하니 그 구음의 소리는 두드리는 최초의 가죽 타악기로 확장되어 태초 시작과 기원을 이야기한다. - 구성 : 소리, 가죽 타악기</p>  <p>#2. 천년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쟁이들의 두드림과 담금질은 악기의 생명을 넣어주니 그 소리는 바로 바람 소리를 상징하는 우리의 금속 타악기 징이라 할 것이다. 다양한 크기의 징 울림은 우리 음악의 음악적 뿌리 깊음을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한다. - 구성 : 징, 소징, 태징, 월드악기</p>  <p>2장 온고지신 (오늘) 옛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다.</p> <p>#3. 사물이야기 숲속의 영혼들이 햇살을 머금는다. 쇠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요 빛의 소리이다. 다양한 정주들은 긴 호흡, 짧은 호흡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공감한다. 그런 그들의 이야기들은 가죽악기와 금속악기의 사물악기로 완성되어 우리네 희노애락을 이야기한다. - 구성 : 팽과리, 징, 장구, 북, 정주</p>

구 분	내 용
	<div data-bbox="676 353 1102 636"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376 640 480 672">#4. 범고</p> <p data-bbox="389 676 1430 775">우리의 신화와 민화에서 빠지지 않는 동물이 호랑이이다. 호랑이는 수호신으로 용맹함의 상징으로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그러한 호랑이의 기운을 전통 기악과 대북의 전위적인 연주에 호랑이 탈춤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p> <p data-bbox="389 779 847 810">- 구성 : 호랑이 탈춤, 대북, 전통기악</p> <p data-bbox="347 846 778 878">3장 생기 (내일) 생기를 불어 넣다.</p> <p data-bbox="347 913 480 945">#5. 이음새</p> <p data-bbox="389 949 1414 1048">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은 그 이음새로 이어지니... 그 이어짐은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며 공연의 완성은 관객과의 이어짐으로 완성되니... 연희자가 관객들과 장단, 연희 퍼포먼스를 통한 교감을 주고받는 공간이다.</p> <p data-bbox="389 1052 794 1084">- 구성 : 다양한 크기의 버나꾼들</p> <div data-bbox="683 1093 1109 1375"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347 1411 507 1442">#6. 구정노리</p> <p data-bbox="389 1447 1430 1617">장구는 우리나라 가죽 계통의 악기를 대표하는 장르에서 장단을 이끄는 타악기이다. 장구놀이의 전통 가락을 느림과 빠름, 균등형과 불균등형의 구조, 그리고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긴장과 이완의 원리'로 모듬북과 삼단장구, 그리고 장구 재구성하여 이영광의 몰개 스타일로 창작된 연주곡이다. 타악기의 원초적인 에너지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다.</p> <p data-bbox="389 1621 783 1653">- 구성 : 장구, 삼단장구, 모듬북</p> <div data-bbox="676 1662 1102 1944"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347 1939 571 1971">4장 환희 (한소리)</p> <p data-bbox="347 2007 507 2038">#7. 백기풍물</p> <p data-bbox="389 2042 1430 2114">풍물은 태고부터 우리와 함께했다. 밤이든 낮이든, 땅에서 하늘 위로 그 간절함으로 함께해왔다.</p>





구 분	내 용
	<p> 생명의 논과 들, 새신랑 새 각시의 혼례에서, 생의 끝자락인 초상집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을 지켜낸 전장에서 함께 했다. 충주에는 노동요뿐 아니라 임진왜란 전장에서 행해졌던 군악인 백기 풍물의 이야기가 전한다. 백기 장군 조운 의병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의병들의 모습을 모티브로 판굿을 재구성하였다. 각기 홀로 일어서는 의병들의 심리를 개인 연희로 풀어 집단의 신명으로 풀어내려 하였다. </p> <p> 풍물에서 시작된 사물놀이는 한 소리이다. 그 한 소리는 “아리”와 같은 의미의 큰소리이며 위대한 소리이자 모두가 하나되는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의 소리이다. 그 한소리는 바로 물개 사물놀이의 미래이다. </p> <p> - 구성 : 팽과리, 재금, 징, 장구, 북, 12발상모놀이, 채상소고놀이, 깃발춤, 설장구, 소금, 태평소 </p>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타악 음악의 발전에 기여 이번 작품을 통하여 전통 타악 음악의 창작 제작에 대한 화두와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전통 음악의 발전에 기여한다. ○ 전통 음악에 대한 인식 개선 이번 공연을 통하여 전통 음악에 대한 일반 관객들의 고정된 의식 개선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수 있도록 하여 전통 음악의 인프라 확대에 기여. ○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발전과 확장에 기여 중소도시의 문화예술단체들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문 예술 단체의 창작 의욕 고취 및 예술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 젊은 국악 예술인 활동 동기 부여 젊은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제작에 대한 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젊은 국악 예술인들이 활동의 어려움속에서 이번 사업을 통하여 젊은 국악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국악 9 거문고병창클럽 : 문제의 숨은 곡 찾기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거문고병창클럽		
공연명	문제의 숨은 곡 찾기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channel/UCw1QuopoZhmUhmCRnAjURaA
실무자명	조현일	E-mail	whtjs8069@hanmail.net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병창, 즉 노래와 악기 연주가 결합된 형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음악 장르이다.</p> <p>1. 전통과 창작 거문고는 다양한 소리질감을 가지고 있는 극(極)적인 악기로서 노랫말과 극(劇)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데 이상적이다. 또한 판소리, 정가, 민요등 다양한 전통 창(唱)과 거문고를 접목한 병창극을 직접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한다.</p> <p>2. 복원과 혁신 전승곡과 더불어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곡들을 복원하고 새롭게 편곡함으로써, 국악계에서 오랜 과제인 거문고병창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작업이다.</p> <p>3.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 거문고병창클럽의 활동은 인문학적 깊이를 가지고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현대에 되살리는 과정이다. 논문과 고악보(고악서) 등의 학술적 연구를 통해 복원된 음악은 단순한 예술적 성취를 넘어, 우리 조상들의 삶과 정신,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현대인들과 공유하는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 이는 전통 예술을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와 사회적 경험을 탐색하고, 다양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인문학적 탐구로 다시 이어진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8.10. 강남문화재단 목요상설공연 선정 ○ 2023.05.10. 국립민속국악원 토요상설공연 선정 ○ 2022.12.28. 서울시 전통문화 발굴 지원 사업 선정 ○ 2021.10.22.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공연 선정 <p><단체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08.10. 강남씨어터, 문제의 숨은 곡 찾기 (강남문화재단 목요상설공연) 2. 2023.05.10.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 문제의 숨은 곡 찾기 (국립민속국악원 토요상설공연) 3. 2022.12.28. 돈화문국악당, 문제의 숨은 곡 찾기(서울시 전통문화발굴지원사업) 4. 2021.10.22. 남도국악원 진악당, 문제의 숨은 곡 찾기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공연) 		

구 분	내 용		
공연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youtube.com/watch?v=jed89h4dVd4 (강남문화재단, 한승호 주연) ○ https://www.youtube.com/watch?v=f45-OydJBaY (돈화문국악당, 서의철 주연) 		
참여인원	총 14명 (출연진 10명 / 스태프 5명)		
소요시간	총 6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전 연령 가능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8 m) ×높이(5 m) ×깊이(8 m)	1. 덧마루: 대략 5개 내외 2. 조명: 바텐 3개 이상, 기본조명 20개 내외, 스포트라이트 5개 내외, 무빙(필수아님) 1개 3. 음향 시스템: 메인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무선 마이크 8개 및 스탠드 5개 4. 영상 장비: 프로젝터 1개 *** 극장과 협의 하에 변동 가능
기타 사항	1. 하루 이상의 기술 리허설 및 사운드 체크 시간 확보 2. 안전 및 비상 대응 계획 안내 및 요청 3. 공연 전후 관객 대기, 기념품 판매 등 부가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로비 등) 확보		
기획 및 제작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알려진 작품이 많지 않은 거문고 병창곡의 전통성과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창작하여 잊혀가는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다시 일깨워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재조명한다. → 역사적 사건, 전설, 인물, 지역(시대) 특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수준 높은 영상을 가미한 거문고병창으로 풀어내며, 관객에게 새로운 문화적 및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희소성을 넘은 예술성으로 인정받도록 한다. → '놀부', '쌍화점'과 같은 대중적인 소재와 연결하여 고대 언어, 전통적 연희의 어려운 접근성을 극복하고 대중에게 친근함을 줌으로써 전통 공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는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객들과의 화합과 소통을 촉진한다. 		
컨셉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는 주인공의 시간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순간에 음악이 있었고 약기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고구려에서 발원한 거문고란 약기가 있었다. 각 시대를 두루 다니는 주인공을 통해 숨겨진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하여 교훈과 재미를 동시에 전달한다. ■ 거문고병창+영상+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장르를 적절히 사용하여 남녀노소, 외국인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융복합 병창극이다. 		
내용 및 특징	<p>“문제의 숨은 곡 찾기”는 전통과 현대, 공연과 관객이 하나 되는 독창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공연은 전통 거문고병창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것과 함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며 관객들에게 뜻깊은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열린 무대, 관객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동선, 영상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공연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무대언어 경험을 선사한다.</p>		

구분	내용
	<p> ■ 연출방향 작품 전체의 흐름과 무대 진행은 관객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구성한다. 이를 위해 무대 디자인과 영상, 악기 배치에 있어서 혁신적인 접근을 취한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구와 대도구의 최소화: 무대는 깔끔하게 유지하되, 공연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소도구를 사용한다. 대도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모듈식 무대 장치를 활용해 다양한 장소와 시간을 표현한다. • 열린 무대 형식: 악기 배치와 무대 구성은 관객들과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열린 무대 형식을 취한다. 공연자들은 관객 가까이에서 연주할 수 있으며 관객은 연희자와 영상을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접하며 입체적인 시공을 느낄 수 있다. • 영상 사용: 공연의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영상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 스토리텔링과 상호작용: 박문제의 여정 문화적 자산을 탐험하는 과정은 스토리텔링과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관객들은 거문고 병창을 통해 우리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체험하게 된다. <p> ■ 스토리보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장면으로 구성된 스토리보드: 4회 공연동안 보완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더욱 세련된 영상과 드라마틱한 이야기 구성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p> Scene 01. 황조가 놀부의 후손으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박문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다 전해지는 보물을 도굴하러 갔다가 벽화의 신(神)으로부터 큰 별을 받게 된다. 그는 '숨은 거문고 (병창)곡'을 찾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신탁을 듣고 길을 나선다. </p>
	<p> Scene 02. 가야금병창 호남가 가야금과 거문고 구분도 못 해서 벽화의 신에게 혼쭐이 난 박문제는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p> 
	<p> Scene 03. 정읍사 여정중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남편을 기다리는 백제여인을 괴롭히는 등 온갖 심술을 꾀지 못한 문제는, 눈이 멀게 되는 별을 받는다. </p>
	<p> Scene 04. 쌍화점 눈이 먼 그는, 이제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 받는다. 거리를 헤매이며 배가 고프던 문제는 코를 킁킁거리며 고려의 만둣가게에 발을 들여놓는다. </p> 
	<p> Scene 05. 팔도유람가+ 6.추가곡 모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박문제는 스스로 병창을 하여 신들을 속여보려 애쓴다. (관객과 호흡을 통한 즉흥 장면으로 연출) </p> <p> Scene 06. 새타령 관객과 소통을 통해 다른 길은 찾은 박문제는 거문고 병창의 시조 신쾌동선생을 비롯, 여러 명인들의 삶을 체험하며 자신이 도굴하려던 보물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다. </p>

구분	내용
	 
	<p>Scene 07.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심청가 중) 벽화의 신은 임무를 완수한 박문제의 죄를 면해주고 상을 내린다.</p> <p>Scene 08. 문제의 숨은 곡찾기 관객과 함께 숨은 곡을 찾으며 한판 놀이판을 벌인다.</p>
	 
	<p>수정 및 보완 방향: 작품의 이머시브 요소 확장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에 맞는 갈등요소와 사회문제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 디지털 시대의 과제, 사회적 정의와 같은 현대적 문제들을 스토리에 통합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캐릭터를 도입하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스토리라인을 추가 ■ 지속 가능한 재화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친화적인 무대 제작: 지속 가능 자재 사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무대요소들을 제작하고 사용하여 버려지는 재화를 최소화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 • 공연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 강조: 공연 내용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환경 보호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여 교육적 가치 확장 ■ 이머시브 요소 추가: 공간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이 다양한 각도에서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중앙 무대를 벗어나, 극장 전체 공간을 무대로 활용 • 조명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키거나 특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어둡게 하여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고 스토리의 중요 포인트를 강조 • 무대나 공간의 특성을 살려 자연스러운 음향 반향을 이용하거나, 특정 소리(바람, 물 흐르는 소리 등)를 사용하여 현장감 확장 ■ 이머시브 요소 추가: 공연지역, 관객과 호응할 수 있는 즉흥곡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의 반영: 지역 관객에게 친숙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 > 몰입도 증가 • 관객 참여의 증대: 관객의 반응을 공연에 직접 반영 > 관객이 공연에 적극 개입 • 공연의 독창성 및 신선도 유지: 동일한 공연을 여러 번 관람하는 관객에게도 매번 새로운 경험을 제공 > 공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 예술적 유연성: 숙련도와 예술적 표현의 폭 확장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p>거문고병창극 "문제의 숨은 곡 찾기"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장르 간의 경계 허물기 : 병창연주자가 직접 연기에 참여함으로써, 관객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스토리에 깊이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 공연 예술에서 연주자와 연기자의 전통적 역할 구분을 해체하고, 예술의 표현력을 강화한다. ■ 문화적 상상력의 확장 : 역사적 문헌에 기록된 고대 음악을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작함으로써, 우리 음악의 역사적 맥락을 재조명한다. 이는 관객에게 우리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인식시키며,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 전통 예술의 현대적 재해석과 동시대 관객 : 거문고병창을 통해 전통 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 : 병창을 현대적 극으로 재창작하여 동시대 예술인들에게 병창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 공연 장소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적 가치와 지역 문화의 인식을 증진시킨다. : 거문고병창클럽의 다양한 실험적 접근을 통해, 전통 악기의 현대 사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 사회적·문화적 가치 창출 :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은 세대간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문화 가치를 전달한다.

국악 10 입과손스튜디오 :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입과손스튜디오		
공연명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www.ipkoason.com
실무자명	유현진	E-mail	producer.wonder@gmail.com
		연락처	(070) 8848-0124
단체소개	<p>입과손스튜디오는 오랜 기간 판소리 창작 작업을 함께해 온 소리꾼과 고수가 모인 작업공동체이다. 입과손은 판소리라는 연희양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한다.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확장 또는 변형하는 작업과 연구를 통해 '판소리 창작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판소리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에 대해 보다 깊고 폭넓게 고민해보려한다. 2017년 창단 이후, 판소리 공동창작의 미션아래 <완창판소리프로젝트>, <판소리 동화시리즈>, <판소리 토막소리 시리즈> 등 판소리적인 감각을 토대로 한 가장 판소리다운 창작방법에 대한 실험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소리 창작'은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결과물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준비부터 창작 과정 전반을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에 판소리 창작 방식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작업방식을 연구하고 기록해 나갈 것이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1주, 2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2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오디오북 발간 (예경 공연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시범사업 선정) ○ 2023. 10.6~7 광명문화재단 공연 (공연유통협력지원) ○ 2023. 9. 16~17 영덕문화관광재단 공연 (공연유통협력지원) ○ 2023. 4. 8~22 두산아트센터 공동기획 (공연유통협력지원) ○ 2022. 8. 25 대전 연정시립국악원 큰마당 (우리음악축제 '하하하'초청) ○ 2022. 7 27 남원 춘향예술회관 (제 4회 대한민국판놀이 별별창극) ○ 2022. 6. 17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벨기에한국문화원 협력 K-vox 10주년 기념공연) ○ 2022. 3. 10~11,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12.16~17 판소리 레미제라블 토막소리시리즈4_자베르 <오류의 방>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2. 2023.11.14~15 베세토 한중일 연극제 초청 <스토리 인 아시아> (중국 심천, 만상천지 극장) 3. 2023.04.08~22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사람들>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4. 2023.07.14~16 퀴드초이스 <두개의 눈> (대학로극장 퀴드) 5. 2022.10.17 제50회 세르반티노 국제페스티벌 초청 <동초제판소리심청가 눈대목 시리즈> (멕시코 과나후아토) 6. 2022. 6.16~21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협력 K-vox 10주년 초청 <구구선사람들> 외 (벨기에 한국문화원) 7. 2021.04.30~05.01 판소리 레미제라블 토막소리시리즈3_가브로슈 (신촌문화발전소) 		

구 분	내 용		
공연영상	https://vimeo.com/853355966/615a1b119b (2023. 4 부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ver.)		
참여인원	총 23명 (출연진 7명 / 스태프 16명)		
소요시간	단체 확인필요	주관객층	7세 이상 관람 가능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 너비(10m)×높이 5m)× 깊이(8m) 이상	세트반입, 덧마루 사용(10개), 바텐 최소 4개 사용
기타 사항	인터미션 없음. 핀마이크 4개 사용. 기타 음향장비는 추후 협의 객석규모에 따라, 세트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		
기획 및 제작의도	<p>○ 작품 소개 및 기획의도</p> <p>- 빅토르위고의 대표작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혁명기를 배경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그 체취를 세밀하고도 밀도 있게 묘사한 작품으로 오랜 시간동안 전세계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때문에 영화, 연극, 뮤지컬 등 새로운 장르로 다양하게 각색되기도 했지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 중 하나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완독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소설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이를 판소리로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p> <p>레미제라블에는 굵직한 사건 외에도 인간의 양심, 정치, 역사, 풍습, 종교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작가의 여담이 곁들여져 있다. 이는 판소리 안에서 일반적으로 소리꾼이 가지는 캐릭터와 화법에 무척 닮아있는 모습이다.</p> <p>백여 년이 지난 이 작품 속에는 가난, 생활에 힘겨워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선과 악, 삶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회의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 들이 포진해있다. 우리는 그런 점들을 소리꾼의 소리와 거리두기, 풍자와 해학을 적극 활용해 담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레미제라블과 판소리 모두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p> <p>○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에 기점이 될 2023년</p> <p>- 2022년 3월, <판소리 레미제라블-구구선 사람들>은 초연 이후 (전북)국립민속국악원, (대전)대전 연정시립국악원, (유럽)벨기에 한국문화원의 연이은 초청을 받으며 관객들을 만났다. 이후, 2023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협력 지원을 통해 13회의 서울 장기공연 (부산아트센터 스페이스 111)과 6회의 지방 공연(영덕관광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을 성공적으로 치뤘다</p> <p>초연 이후, 3년차에 접어드는 2024년 입과손스튜디오는 <구구선 사람들>의 예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국내/외 유통판로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9월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초연과 재연의 내/외부 피드백을 반영하여 드라마와 형식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친 2024ver. <구구선 사람들>을 7회의 장기공연으로 발표, 이를 기점으로 국내 다양한 지역으로의 유통을 시도하려고 한다. 2023년 수도권 소재인 광명과 경북권의 영덕에서의 공연을 진행한 바, 서로 다른 공연환경과 관객층을 유통모델로 삼고 각 지역 극장에 맞춘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려 한다.</p>		

구 분	내 용
컨셉 및 주제	-
내용 및 특징	<p>○ 시놉시스</p> <p>-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불쌍한 구구선 사람들</p> <p>-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망망대해를 끊임없이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세상은 동그랗고 커다란 배 한척. 배의 이름은 구구선이다.</p> <p>구구선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불쌍하다. 정착할 곳 없이 계속해서 떠가는 삶은 불안하기 그지없고, 애초에 '물'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삶은 계속해서 떠밀려오니,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파도에 휩쓸리듯 살아간다. 그들의 꿈은 정착이다. '물에 살게 되면 지금보다 사는 게 좀 낫겠지.'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은 희망이자, 유토피아다. 장 씨도 그렇게 살던 사람 중 하나다.</p> <p>장씨는 하 수상한 시절의 피해자다. 열심히 사는데도 극복되지 않는 가난은 이 십대 청년에게 너무큰 짐이다. 게다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곳이 없는 어린 조카들까지 맡아 기르니, 형편은 말도 못하게 안 좋다. 그래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어찌어찌 먹고 살 정도는 되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나서는 도무지 어린 조카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다. 갖은 애를 써봐도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몇일이나 굶은 어린 것들은 배고픔에 운다. 그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빵 한조각을 훔친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본격적인 시련으로 돌아올 줄도 모르고...</p> <p>그가 받은 형량은 무려 24년. 빵 하나 훔친 댓가로 5년 형, 어린조카들 걱정엔 시도했던 탈옥으로 19년 형을 받았다. 너무 과한 처사지만 노동 착취를 위한 통치기구 놈들의 꼼수를 피해갈 방법은 없다. 죄수들은 교도소나 다름 없는 배의 하부 엔진구구로 간다. 사회봉사 명목으로 지독한 노역을 하기 위해서다. 구구선은 그들이 페달을 밟아 일어나는 물살로 추진력을 얻는다. 장 씨는 자신의 젊음을 모두 엔진구구에서 탕진하고, 사회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타운은 최악 중에 최악이다.</p> <p>○ 연출의도</p> <p>- 판소리의 핵심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스토리텔러 소리꾼의 시선에 있다. 입과손은 그간의 창작판소리 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왔고, 그 시선이 무대 위에 잘 선보여질 수 있도록 연출하고자 노력해왔다. 소리꾼이 이야기를 잘 펼쳐 놓을 수 있는 '판'을 만드는 데에 집중해 연출하기 위해서는 무대미술이 지나치게 설명적이거나 구체적인 방향이어서는 안된다는 철학으로 이번 작품에서도 단순하면서도 활용성이 높은 무대미술을 택했다. 원목 마루 느낌의 세트와, 상부 구조물은 되는 배의 갑판을 연상시킨다. 그 위를 마음껏 움직이며 이야기하는 소리꾼의 동선은 짧고 굵직하게 연출할 예정이다.</p> <p>등장인물들의 배치와 동선은 전통적인 판소리 양식과 새로 만든 판소리 양식이 선택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리꾼과 고수는 본 무대격인 흰 마루를 '판'으로 활용하고 소리꾼의 이야기를 받아주거나 힘을 실어주는 2명의 등장인물과 밴드는 본 무대 걸을 크게 둘러 자리한다.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우르는 품이 넓은 소리꾼의 시선과 방대한 원작에서 입과손이 추려낸 압축적인 장면들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마다 특정 조명(조도나 색)을 만들고 적용했다.</p>

구 분	내 용
	<p>○ 작품 창작 과정 (제작 노트) - 토막소리형 작품의 눈대목과 인물을 중심으로, : 완창판소리완창형 작품인 <판소리 레미제라블-구구선 사람들>은 기제작된 세 편의 토막소리 작품들에서 개발된 소리와 이야기를 따와 엮은 것이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작가(소리꾼)들에 의해 만들어진 토막소리들이 하나의 긴 서사가 되는 '전통 완창판소리 창작 과정'에 착안하였다. 그간의 판소리 창작 방식과 다른 작품 제작방식은 인물들의 서사에 깊이를 더하고 작품의 양식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토막소리를 통해 전사를 만든 등장 인물(판틴(방미영), 마리우스(신 군), 가브로슈(가열찬))들은 원작의 주인공 장발장(장 씨)의 서사가 판 위에서 더욱 다채롭게 진행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입과손은 이번 완창형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세계를 하나로 잇는 실험'에 집중했다. 토막소리에서부터 온 등장인물들이 가진 서로 다른 배경과 시대, 서사를 연결하는데 장 씨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한다.</p> <p>○ 공연 실황 사진</p> 
기대효과	<p>○ 단체 유통주력 레퍼토리 개발 -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기획공연과 지방 투어로 개발된 단체의 주요 레퍼토리의 유통 확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면, 이후 단체는 유통경쟁력이 있는 작품 레퍼토리를 가지게 된다. 더불어 향후 유통에 용이한 기반(자료, 지역유통 및 홍보/마케팅 모델, 워크샵 연계 등)이 되어 회차를 거듭할수록 업무 및 유통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p> <p>○ 새롭게 개발된 레퍼토리 발표의 토대 마련 및 문화소외지역 유통 모델 개발 - 입과손스튜디오의 창작 노하우가 가장 집약적으로 담긴 레퍼토리를 새로운 극장에서 올리게 된다면 이는 향후 단체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해당 극장에서 다시 발표하게 될 때에 좋은 사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해당 작품 유통작업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더불어 서울, 수도권, 문화 소외지역 등 다양한 환경의 유통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단체의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에도 유통의 특이성을 고려한 방향성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

구 분	내 용
	<p>○ 연작형태의 발표로 독립된 4개의 레퍼토리 시리즈 발표 가능성 - 유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투어 루트에 따라 <판소리 레미제라블-구구선 사람들>을 발표하고나면 이 작품을 최종형으로 두고 제작된 관련작 4개의 레퍼토리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에 용이해진다. 인근 지역을 하나로 연합해 시리즈를 발표하거나, 시즌마다 1-2회씩 발표를 진행하는 등 단체의 실험 방향성과 작품 제작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의 시리즈물을 연속성 있게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p> <p>○ 예술가 및 공연예술분야 기술/기획/홍보 인력 일자리 창출 - 해당 프로젝트에는 다수의 종사자가 참여한다. 특히, 예술가들에게는 안정적인 공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창작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각 파트의 기술 스태프, 기획, 홍보 인력 등공연 예술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지역 공연장 활용 및 양질의 공연 및 체험컨텐츠로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 마련 -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 공연장으로까지 닿을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공연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지역공연장 가동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화 소외지역이나 판소리 관람 기회가 적은 지역으로 유통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경우 다양한 매체와 지역 특성에 맞춘 홍보를 선보여 관객은 보다 능동적인 예술경험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향후 문화소외지역을 타겟으로한 새로운 유통모델 개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p>

국악 11 여성타악 연희그룹 도리 : 사물놀이 명품화 프로젝트 <세 개의 사물>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여성타악 연희그룹 도리		
공연명	사물놀이 명품화 프로젝트 <세 개의 사물>		
단체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4_dori/
실무자명	조민경	E-mail	mk_jo21@the1art.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도리'는 2013년 정식 창단한 전통을 살펴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실력있는 전문연희 단체입니다.</p> <p>한국 전통타악의 고급화와 명품화를 지향하며 정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물놀이 음악의 앙상블과 예술성에 초점을 맞춘 '사물놀이 명품화 프로젝트 <세 개의 사물>'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사물놀이 원형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본 프로젝트는 2018년 <세 개의 사물> 쇼케이스 이후, 2019년 소극장 투어, 2021년 전국투어를 진행하면서 도리의 시그니처 공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p> <p>최근에는 전통타악공연의 예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미국, 홍콩 등에서 도리의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p> <p>도리의 전통연희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관객들로 하여금 단순히 연희를 즐기는 것을 넘어 하나의 예술장르로 인식하게 합니다. 도리의 지속적인 행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4.29.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한민국전통문화대축제' 초청공연 ○ 2022.12.31.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 수상 ○ 2022.09.30. 국립민속박물관 기획공연 진행 ○ 2022.08.01.~08.16.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문화공연', '거리공연' 지원사업 선정 ○ 2021.10.27. 음악창작소운영지원사업 '이판사판콘서트 시즌 3' 초청공연 ○ 2021.10.17. 부평풍물대축제 폐막공연 초청공연 ○ 2021.08.13.~10.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공연활성화지원사업 선정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10.14. 홍콩 구룡공원, 'Hong Kong Chinese Orchestra concerts' <판굿> 2. 2023.10.07. 휴스턴 그린 디스커버리, 'Houston Korean Festival' <사물 완판> 3. 2023.07.15.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여우락 홈커밍' <삼도 사물놀이>> 4. 2023.06.17. KBS홀, '국악한마당 단오특집 1460회' <단오 판굿> 5. 2023.04.29.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 '대한민국전통문화대축제' <세 개의 사물 중 웃다리풍물> 6. 2022.09.30. 국립민속박물관, <세 개의 사물> 7. 2022.08.01.~16. 인천 일대, '찾아가는 문화공연', '거리공연' <세 개의 사물> 8. 2022.09.11.~11.13, 청남대 외 2곳, '어울마당 풍물세상' <도리판GOOD> 9. 2021.10.27. 음악창작소 뮤지트홀, '이판사판콘서트 시즌3' <세 개의 사물> 10. 2021.10.17. 부평풍물대축제 폐막공연 <세 개의 사물 중 웃다리풍물> 11. 2021.08.13.~10.31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극장 외 7곳, <사물놀이 명품화 프로젝트 전국투어 '세 개의 사물'> 		

구분	내용		
공연영상	○ https://youtu.be/11J7Rw9_XVA		
참여인원	총 10명 (출연진 4명 / 스태프 6명)		
소요시간	총 6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20~60대 국악 애호가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면적 무대 너비(6m)×높이(3m)× 깊이(4m)	무대시설 세트 : 4 러그, 1 깃발 조명 : 4 바텐, 고보 조명
	기타 사항 영상 스크린, 빔 프로젝터 필요		
기획 및 제작의도	<사물놀이의 음악성을 보여주다> 사물놀이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 전통문화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지만, 전문성은 오히려 떨어져 '사물놀이'만으로 음악성을 내세우며 공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리는 앙상블형 연주 형식의 사물놀이를 질 높은 공연으로 올바르게 전달하여 사물놀이만의 음악성과 매력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컨셉 및 주제	<사물놀이의 고급화> 사물놀이가 철저하게 음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컨셉으로 영남농악, 우도굿, 웃다리 풍물을 차례로 연주하며 타악 앙상블의 끝을 보여줍니다.		
내용 및 특징	<사물놀이 3대 완판곡 전체 연주> 사물놀이의 3대 완판곡인 영남농악, 우도굿, 웃다리풍물의 원형을 복원하여 연주합니다. 각 곡의 인기 있는 부분만 모아서 짧게 들었던 최근의 사물놀이와는 달리 도리의 해석을 덧입힌 사물놀이의 오리지널 구성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음악성 높고 전문성 있는 공연입니다.		
	공연수정 계획 등 (기존) 토크콘서트 → (수정) 사물놀이 명품화 INSIDE 등 영상으로 대체 관객들에게는 본 공연의 이해를 도우며, 도리에게는 체력 안배를 위해 공연 사이 영상 프로그램 삽입		
	순서	프로그램 세부 내용	소요 시간
	1	▶ 영남농악 - 영남농악의 드라마틱한 흐름을 극대화하고, 반길군악 장단에 동해안 무속의 자브라깡을 도입하여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10분
	2	▶ About 세 개의 사물 - 사물놀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도리가 가지는 세 개의 사물에 대한 고찰과 공연의 의도를 영상으로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5분
	3	▶ 우도굿 - 호남의 끈적끈적한 장단의 맛을 보존하며 연주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장구와 쇠의 앙상블을 높은 수준까지 추구하였습니다.	20분
	4	▶ 사물놀이 명품화 INSIDE - '도리'가 사물놀이의 전통적 요소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조명하는 영상입니다. 도리의 창의적인 과정과 공연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기법, 편곡 방식에 대해 소개하며, 어떻게 각 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지 보여줍니다.	5분
5	▶ 웃다리풍물 - 자진칠채의 가락과 짝쇠를 통해 뿔과리의 여러 가지 측면(성음, 톤의 차이, 표현력, 리듬의 불균등 분할)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분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p>1) 공연장 브랜드 가치 향상 앙상블형 사물놀이인 <세 개의 사물>은 전통연희의 고급스러움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공연장과 차별화를 선보입니다. 이는 공연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관객층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p> <p>2) 존중받는 전통연희 사물놀이를 존중받는 음악 장르로 승격시키려는 '도리'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동네 잔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놀이 공연이 아닌 전통 음악의 깊이와 전문성이 도드라지는 한국 문화로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음악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사물놀이의 예술적, 역사적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p> <p>3) 수준높은 문화 관광 콘텐츠로 활용 2023년 초, <세 개의 사물> 공연을 본 휴스턴 한인회와 홍콩 오케스트라 측에서 '도리'를 자신들의 공연에 초청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뿐 아니라 다른 해외 타악 공연자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도리의 수준 높은 사물놀이 연주 실력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공연을 보여준다면 한국의 문화 관광 콘텐츠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p>

국악 12 프로젝트 安 : ONE, 나의 유토피아!

구 분	내 용		
공연단체명	프로덕션 安		
공연명	ONE, 나의 유토피아!		
단체 소재지	광주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c/seojungmin
실무자명	정혜리	E-mail	art.hjung@gmail.com
		연락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
단체소개	<p>프로덕션 安은 가야금 연주자 겸 창작자 서정민을 중심으로 전통음악과 전통문화를 심도깊게 탐구하여 감각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창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동시대 관객과 만나오고 있는 단체이다.</p> <p>특히 2020년부터 전라남도과 광주 지역 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이어져 오는 '굿'과 지역 문화재 등을 다룬 작품 <One, 나의 유토피아!>를 음반, 공연, 영상, 전시 등 다양한 장르 언어로 소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One, 나의 유토피아!> 작품으로 2021 PAMS-CHOICE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22 CINARS BIENNALE 공식 쇼케이스, 2022 인도 투어공연, 2024 미국 Performing Arts Global Exchange 프로그램 선정(7개도시 11개 공연장 투어 공연), 홍콩 Hong Kong Performing Arts Expo 국제 쇼케이스 부문 선정 공연 등으로 전세계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p>		
공연 가능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공연실적	<p><신청 공연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아카데미 선정 작품 2. 2021 PAMS CHOICE 선정 3. 2022 CINARS Biennnale 쇼케이스 선정 4. 2022 <YOUtopia> 인도 4개 도시 투어((첸나이, 코치, 뭄바이, 군투르) 5. 2024 Mid Atlantic Arts – Performing Arts Global Exchange Roster 선정 <p><단체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3. 9. 9.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 <모여 사는 풍요> 2. 2022. 12. 12~17. 인도 4개 도시 투어(첸나이, 코치, 뭄바이, 군투르), <YOUtopia> 3. 2022. 11. 9. 캐나다 몬트리올 Le National, <One, My Utopia!> 4. 2022. 10. 30. 홍콩-서울 온라인 실시간 합주 <홍콩 Freespace Jazz Fest> 5. 2021. 10. 30. 서울 TINC <YOUtopia> 6. 2021 01 15. 서울 플랫폼 L <One, 나의 유토피아!> 		
공연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_STrFpCUHo		
참여인원	총 12명 (출연진 5명 / 스태프 7명)		

구 분	내 용		
소요시간	총 60분 (인터미션 없음)	주관객층	① 한국 음악 및 클래식 창작 음악에 관심있는 대중 ② 일반 관객
공연 가능한 공연장 규모	객석규모	무대면적	무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극장(1,000석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500~1,0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극장(300~500석 미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공연장(300석 미만)	무대너비(14m)×높이(4m)×깊이(8m) 이상	극장 덧마루 사용 예정
기획 및 제작의도	<p style="text-align: center;">일상에서 만나는 가장 비일상적인 시공간,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됨과 위로'</p> <p>어떤 한 신호를 기점으로 시공간이 바뀌는 경험. 그것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공연장에서 공연을 볼 때, 종교적 공간에서 예식을 시작할 때 등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굿' 역시, 당골(전남 무당)과 고인(악사)의 음악 언어를 통해 순식간에 작은 일상 공간을 모두의 상상과 염원을 담은 새로운 시공간으로 변모시키는 행위이다. 나아가 '굿'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경험하는 그 새로운 시공간은 단순히 비일상적이고 어려운 공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함께 한 모두가 위로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나갈 힘을 얻는 곳'으로,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서정민이 남도에서 깊은 학습을 통해 발견해낸 '굿'의 '새로운 시공간'은 오래 이어져왔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공간일 것이다.</p> <p>서정민은 오늘날 예술이 할 수 있는 일, 예술가가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는 창작자로서 오랜시간 고민해 온 끝에 '굿'에서 발견한 이 새로운 시공간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즉 '유토피아Utopia'라는 컨셉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음악의 언어로 한 순간에 '유토피아'로 전환된 시공간에서 예술가들은 마치 굿의 연행자처럼 관객들을 새로운 시간과 세계로 불러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편히 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단단한 마음을 선물해줄 것이다.</p> <p>* https://youtu.be/vwjkbpTwDU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 'One, My Utopia!' 공연 제작기</p>		
컨셉 및 주제	<p>- 주제 및 콘셉트 "서정민의 음악이 주는 위로를 통해 하나(One)가 되는 동글동글한(圓) 유토피아"</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작품의 제목에서 주지하듯 이 작품은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시공간과 세계를 콘셉트로 하며, 유토피아는 '굿'이라는 낯선 장면에서 끌어올린 키워드이다. 전통 굿이 주는 강렬한 색채적 감각이나 음악, 힘찬 움직임 등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석으로 '굿'이라는 의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유토피아'의 낯설지만 따뜻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다. 서정민이 자신만의 음악 언어로 새롭게</p>		

구 분	내 용
	<p>지어내는 유토피아에서 위로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One) 장면을 '원(圓)'을 모티브로 한 무대미술과 함께 선보이고자 한다..</p> <p>곳을 여행할 때에 '리미널리티(평소에는 금기로 여겨지는 공간과 행위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 빅터 터너)'의 단계를 넘어 마침내 우리는 일상생활과 분리된 순간을 맞이하고, 그 순간 우리 모두가 평등해지고 축제가 된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나 행복이 되는, 혹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고, 곳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까지, 곳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이 공연은 25현 가야금과 무가, 타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관객들을 만나왔는데, 서정민의 독창적이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호평을 받아왔으며, 초연 당시에는 파이프오르간이 함께하여 음악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부분이 여과없이 드러났었고, 국내 재연시에는 무용수가 함께하여 서정적이고도 리드미컬한 유토피아를 꾸몄었다. 이후 이어진 해외 공연에서는 무대와 음악을 간소화하여 트리오 버전으로 공연을 이어왔으나, 이번 공연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공연에서는 국내 관객들을 만나는 만큼 오르간과 무용을 모두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풍성한 공연과 무대미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전에 없던 색다른 조합으로 굿 음악과 의례에서 발견한 "즉흥"과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발전시켜 마침내 아름답고도 따뜻한, 이전에 없던 유토피아를 선보일 예정이다.</p>
<p>내용 및 특징</p>	<p>- 프로그램</p> <p>INTRO: 일상</p> <p>1. 서곡과 무가</p> <p>리미널리티: 평소에는 금기로 여겨지는 공간과 행위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p> <p><i>금지된 문지방(Limen)을 넘어... 그 곳으로 가자!</i></p> <p>2. 모든 것은 빛나리</p> <p>3. COSMIC TREE</p> <p>지금 이 순간</p> <p><i>리미널리티와 유토피아 사이 그 어딘가, 지금 이 순간을 연주한다.</i></p> <p>4. 무의식</p>

구 분	내 용
	<p>나의 유토피아: 나의 세계로 놀러오세요 <i>그 빛나는 순간은 덧없고, 우리에게겐 위로가 필요하다.</i></p> <p>5. GOLD 6. 버리데기의 위로 7. 유토피아</p> <p>OUTRO 다시 일상으로 <i>소리와 소리가 만나 음악이 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i></p> <p>8. ONE</p> <p>- 전문가 리뷰</p> <p>“Informed by Seo(Seo Jungmin)’s deep research into sinawi traditions, her set, in which she plays the gayageum and is joined by percussionist Byungwook You and singer Yulhee Kim, artfully balances innovation, tradition, musicality and virtuosity.”</p> <p>시나위 전통요소에 관한 서정민의 심도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그녀의 25현 가야금과 타악 연주자 유병욱, 무가의 김윤희가 함께하는 그녀의 팀은 혁신과 전통, 음악성과 기교가 예술적인 균형을 이룹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_Christopher Conder, UK-based music journalist https://www.theapro.kr/eng/now/now_view.asp?idx=1406&page=1&s1=title&s2=&flag_initial=&od=0&r_category=&r_tag=</p> <p>씻김굿 음악을 연구하여 창작한 연주곡들은 두 번째 곡부터 다섯 번째 곡까지 본격적으로 연결되며 서정민 연주자만의 진취적이고 힘 있는 연주와 스타일을 잘 보여 주었다. 그 스타일은 자유롭고 과감하며 실험 정신을 지닌 서정민 고유의 스타일로서 다른 연주자들과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철가야금을 사용한 작품에서는 사운드적 접근과 친근하게 따라갈 수 있는 프레이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퍼포먼스 행위를 통해 라디오의 백색 소음과 가야금을 덮은 흰 천을 활용한 소리 질감을 들려주는 부분은 망자의 혼과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암시 된다. 다섯 번째 곡에서 타악기와 이중주를 통해 리듬과 장단을 주고받는 속주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서정민의 연주능력은 가히 이번 작품의 백미로 신선하고 능숙하고 탁월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_원일(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감독)</p> <p>가야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레이징(진부한 표현이지만 서정민이 만들고 구사한 선율, 리듬적 프레이즈들이 실로 다양했기에 ‘다양한’이라는 형용사를 선택하겠다)을 반복과 즉흥을 통해 구조적으로 연결했고, 대부분의 곡들에서 (음악적으로) 드라마틱한 기승전결을 꾸려나갔다.</p> <p>발현악기의 전통적인 연주관습을 존중하면서도 확장된 테크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연주가이자 창작자’로서의 면모를 진하게 각인시켰다. 이에 눈을 감고 감상하더라도, 서정민의 음악은 청각적인 압도감을 주기에 충분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_주정현 (2019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분야 연구생)</p>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p>세계 무대에 오르는 동시대 전통 창작음악의 현재를 소개하다!</p> <p><One, 나의 유토피아!>는 지역과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보편적 주제 의식과 표현력, 높은 음악적 완성도, 감각적인 무대 연출 등으로 주목받았으며, 2021년 국내 초연 이후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대 공연예술마켓인 PAMS-CHOICE에 선정되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선보인 쇼케이스로 극찬을 받고, 북미 최대 공연예술마켓인 CINARS BIENNALE에 한국 음악팀으로서 10여년만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시대 전통 창작음악으로서 국내보다 해외 무대에서 인정을 받아왔다.</p> <p>세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동시대 전통 창작음악을 국내 관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관객들은 세계 무대 수준의 공연을 동일하게 경험하여 심미적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예술가는 예술 창작과 활동의 동기와 정서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p> <p>감각적 공연 콘텐츠를 통한 관객들의 예술 향유 욕구 충족</p> <p>가야금 연주자 서정민, 타악연주자 유병욱, 소리꾼 김윤희, 오르가니스트 남에셀, 무용가 박수정,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정혜리, 무대미술가 조일경, 음향 디자이너 정승리가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단순한 '전통음악 공연'을 넘어서는 '감각적인 공연 콘텐츠'이다. 전통음악이 추구하는 수준 높은 연주력과 완결성은 유지하되, 가장 감각적인 무대 미술과 구성, 공연 연출을 통해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무섭지 않은 공연으로 전통음악 애호가부터 전시 애호가, 혹은 일반인까지 다양한 관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의 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p> <p>실력있는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한 전통 창작음악의 관객 개발 및 향유층 확대</p> <p>점차 공연의 관객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되는 문화가 눈에 띄는 요즘, 각 장르에서 주목받고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한 이번 공연은 구성원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창작자인 서정민은 2010년대 Su:m 활동기부터 일찍이 전통예술계의 스타 예술가로 자리매김했고, 타악연주자 유병욱은 전통타악뿐 아니라 월드타악을 고루 다루는 멀티 퍼커셔니스트로서 JTBC 슈퍼밴드 2에 출연하는 등 주목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소리꾼 김윤희는 전통소리에서부터 노선택과 소울소스 팀 활동을 통해 선보인 레게 음악, 소리극과 뮤지컬 등의 무대에서 선보인 팔색조같은 매력으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대에 가장 주목받고있는 전통 예술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전통장르 예술가 외에도 클래식(오르간), 무용까지 다양한 장르의 실력있는 예술가들이 협업한 작품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관객을 유입시키고, 이들이 무대에서 선보일 수준 높은 전통 창작음악 공연을 통해 이 공연의 관객뿐 아니라 전통 창작음악 장르의 관객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